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이 혹은 마르고 혹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4-25절)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육신과 영혼을 말씀으로 회복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원의 열매가 되는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7호 2012년 8월 1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텍스트 실종... 온전한 성경진리 축소

## CT, '내러티브' 나 '스토리텔링' 으로만 성경 읽을 때 문제점 제기

내러티브(narrative)는 이야기이다. 인과관계로 엮인 허구 혹은 실제 이야기가 내러티브이다. 내러티브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즉 문자가 생기기 이전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야기를 즐겼으며, 시대, 장소, 사회를 초월해 모든 인간 부류와 집단은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다. 또한 내러티브는 너무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화, 전설, 우화, 설화, 소설, 서사시, 역사, 고백록, 비극, 희극, 무언극,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일상 대화 등에서 우리는 내러티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내러티브는 우리와 각자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성경도 그 예외는 아니다.

성경을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가진 이야기로 해석한다. 즉 성경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단일한 내러티브로 해석한다. 따라서 신학적인 담론이나 정언적(定言的)인 명제들보다는 성경을 영원한 하나님

과 평범한 남녀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로 다시 보려고 시도한다. 결국 한마디로, '내러티브' 성경 읽기는 '예수가 정말 부활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부활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본문보다는 이야기 또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의 해석학적 전 이해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종종 소위 '이야기식 설교'나 '스토리텔링 설교'에는 텍스트가 실종된다. 성경에서 본문이 생략되거나 실종되면 당연히 복음이 실종되며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실종된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복음에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신학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내러티브 신학, 스토리텔링 식 해석을 비판한다(The Gospel Is More Than a Story: Rethinking Narrative and Testimony). 성경을 이야기로만 읽을 때 온전한 성경의 진리들이 축소된다는 점을 CT는 분명하게 지적한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자'는 해석학적 발상은 20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 저널에는 내러티브 신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교회 사명선언까지도 점점 더 '내러티브적'이 돼가고 있을 정도로 '대세'이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가 교리적이고 명제적인 성경 읽기를 공격하는 추세다. 데렉 플러드(D. Flood)가 2011년 '허핑턴 포스트' 웹진에 기고한 "신앙은 왜 교리가 아니라 스토리인가?"라는 기사는 기독교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정리한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올바른 믿음과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 자신의 스토리가 되어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토록 빠른 속도로 깊숙이 내러티브에 빠져들었을까? 내러티브에 당혹감을 느끼던 단계에서 어떻게 내러티브를 강조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내러티브가 신앙의 필수 요소가 됐다가 교리를 대체하는 단계가



내러티브 시대에 맞춰 '이야기 설교'가 급속 확산되고 있지만 교리나 신학을 떠난 설교는 '우리 이야기'만을 전하게 될 위험이 있다.

지 이르렀을까? 내러티브에 급작스럽게 빠져들게 된, 전혀 없는 이 현상의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시대가 내

러티브의 시대라는 점이다. 우리 문화를 '이야기의 힘'에 흠뻑 빠져있다. 이야기를 통한 접근 방식이 거의 모든 학문 분야와 담론을 지배한다. 저널리스트 로버트 풀포드(R Fullford)는 '내러티브의 승리'(The

Triumph of Narrative)라는 책에서 문명화된 삶의 중심에는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러티브는 우리가 자신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즐겁게 하는 (사실 종종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토리는 의문의 여지없이 우리 세상, 우리 자신 그리고 서로를 설명하는 지배적 수단이었다. 요즘은 이웃이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보다는 "당신은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문화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러티브의 급부상에는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침한 하부가 있다.

내러티브를 둘러싼 현상은 익숙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없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우리 문화가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3면으로 계속)

#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 리더십저널, 불안과 스트레스 이겨내는 마음의 힘 '회복탄력성' 소개

사람들은 누구나 역경을 겪는다. 하지만 이 역경을 대처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역경에 굴복해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역경을 이겨낸다. 심리학에서, 역경 속에서 더욱 강인함을 발휘하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갑자기 해고당한 프로그래머 A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폰을 근사한 실로폰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게 된다. 그 후 열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A는 앱스토어에서 엄청난 판매 수익을 거두며 백만장자가 된다. 한편, 함께 해고당한 프로그래머 B는 스트레스에 가득 차 걱정하고 우울해하며 허송세월만 보낸다.

2008년 미국 경제가 무너지자, 잘 나가던 증권중개인 A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절망에 빠진 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한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B는 주택시장이 붕괴되자 파산하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지만 몇 달 후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며, 금전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온 가족이 푹푹 뭉쳐 잘해내리라 자신하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 위기, 재난, 고통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긍정적 감정들로 자신 해방시키면 자아확대

우리 앞에는 자연재해, 신종 전염병, 정치 경제 위기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커다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은 절망이 주는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근심하고 절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회복탄력성'은 각종 위기, 재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이다.

심리학에서 '회복탄력성'을 도입한 사람은 조앤 보리센코 박사이다. 그는 원래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촉망받는 암세포 연구자였으나 암으로 고통 받던 아버지의 자살을 계기로 암세포 자체보다는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심리학자로 거듭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 뒤 하버드 의대 병원에 미국 최초로 '정신-신체 통합의학클리닉'을 설립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힘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2면으로 계속)



2면

경제 회복시길 공화당  
회원투수 등장!



7면

특별기고  
노봉린 박사



16면

선교사와의 만남 (1)  
김정희 선교사(KWWMF 여성지회장)



16면

기독교교육(본부장 최 길)을 찾아서  
"새 학기...무리하지 않는 학습습관..."

# 담임목사 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M. Div학위이상)
4. 목회 경력 5년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관, 등)
3. 학위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증명서
5. 최근 설교 CD혹은 DVD 2회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목회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서(2인)

### 제출기한

2012년 8월 31일(당일도착분에 한함)

## 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주소: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홈페이지: http://www.hnbc.org  
Tel) 713-722-0773, Fax) 713-722-8929 e-mail) hnbcoffice@gmail.com



▲ 본당



▲ Children 재물



▲ 체육관



▲ Youth 재물



본교회는 7 acres(304,920 sq ft)의 부지위에 54,000 sq ft에 달하는 4개의 건물(Sanctuary, Gym, Education, Office build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론 올림픽 소감



원준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렸던 제 30회 런던올림픽이 보름간의 일정을 마치고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올림픽 앞에서 종교와 사상이 손을 잡았고, 지방색이나 정치적 성향은 초월되었으며, 각 나라들이 보여준 위대한 드라마에 현안도 잠시 잊고 박수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 이제, 선수들은 앞다투어 자기나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여름을 달궜던 열기가 식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만 같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나라 밖에서 거둔 역대 최고의 성적 때문만이 아니다. 올림픽 참가 이후 64년 만에, 그것도 일본을 이기고 금보다 귀한 동메달을 딴 축구열기가 그렇고, 이른바 비인기 종목과 서구독점 종목에서의 통쾌한 약진이 가져다 준 감흥은, 정말이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림픽 같은 지구촌축제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에 남는 아쉬움이 있다. 우선 승자와 패자에 대한 고착된 인식이다. 승패로 갈라지는 승부의 세계는 냉엄, 냉혹, 냉정하다고들 한다. 메달 유무에 따라 명예가 크게 갈릴 뿐 아니라, 이른바 노메달 선수들은 다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깊은 그늘로 들어간다. 한국에 진 일본축구선수들에게 해엄쳐오라 했다는 것은 내 나라 이야기가 아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무리 국가적 자존심이 걸렸거나 승부욕이 강하다 해도 이제는 승패, 그리고 승자와 패자에 대한 사려깊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승과 패, 메달의 유무, 혹은 메달의 색깔이 선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단 하루 혹은 몇일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세월에 남긴 탐과 눈물이 있다.

사실, 올림픽에 나오는 국가대표선수 정도면 실력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집중력, 게임운영, 컨디션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수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긴 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4년간의 수고와 인내가 마치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매우 안타깝다. 메달만 없었을 뿐이지 개인의 실력은 향상되었고 목표를 향해 정진했으니 감사한 일이며, 또한 전문 분야의 역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니 된 것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승패나 메달유무에 상관없이 그들의 지난 4년을 기억해주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참여정신도 그렇다. 어린 시절, 체전을 중계하던 아나운서들의 '자기고향'을 빛내기 위해 나온 선수들이란 표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금처럼 특별 포상금이나 영광의 기회가 크지 않았으니 자기고향을 위해 참여했다는 말이 맞다. 올림픽도 그랬을 것이다. 내나라 이름을 빛내면 되었다. 그래서 일제치하였지만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목이 메어 끝까지 부를 수 없었던 것이다. 시대가 다르다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다. 메달의 색에 따라 명예와 부가 한꺼번에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고생한 선수들에게 보상이나 격려가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만일 그것을 목표로 참여한다면 적어도 올림픽정신은 실종된 것이다. 나라를 위해 뛰는 순박한 마음이 아쉽다. 개인만이 아니다. 올림픽이 소수강대국의 국력자랑 기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 과학적 훈련은커녕 기본적인 선수선발이나 참여경비를 걱정하는 나라들이 아직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종목결정이나 경기의 물조차도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로 정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약소국도 모처럼 어깨띠고 함께 뛰어 노는 자리가 되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스포츠외교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한국선수들을 대변하는 한반도스포츠외교에 그치지 말고 올림픽정신이 살아나는 지구촌스포츠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어찌 올림픽뿐이겠는가?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성과나 업적 때문에 사람이 구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와 소속 교회를 빛내려는 사명의식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 뒀던 모든 선수들과 그들을 위해 선수보다 더 수고한 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또한 각 지역 교회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탐과 눈물,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내어준 모든 무명의 성도들에게 힘찬 기립박수를 보낸다.

# 경제 회복시킬 공화당 구원투수 등장!

## 롬니 후보 2012대선 러닝메이트, 폴 라이언 하원의원 선택

공화당의 대권후보인 롬니 후보는 11일 자신과 함께 선거에 나설 러닝메이트로 위스콘신 주 출신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폴 라이언 의원이야말로 자신과 함께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이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직접 꼬집은 건 이날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한 라이언 의원이었다.

라이언 의원은 우선 롬니와 함께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매우 흥분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말했다. 라이언 의원은 이어 롬니와 자신이 단 짝을 이뤄 미국이 전 세계 초일류

관계 주요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롬니 선거 진영이 막판에 폴 라이언 의원을 낙점했다는 점에서 선거전략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라이언 의원은 마흔 두 살의 젊고 패기 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내 보수 세력의 총아로 떠오르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연방하원 예산위원장으로 몸담고 있고, 이미 미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공화당 부통령 후보 폴 라이언(왼쪽)과 대통령 후보 롬니

## 서민출신 강경 보수주의 경제통... '오바마의 저격수'로 명성미 언론, "유권자 '경제 회복 정책 지지'가 관건" 보도

국가로서 영감을 불어넣고 지난 4년간 실추된 지도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며 야심을 드러냈다.

다시 말하자면, 거의 다 진 야구 경기에서 구원 투수가 나서야 할 차례라는 주장이다. 또 전 세계에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며 힘주어 말했다. 결국 공화당이나 롬니의 지지자들을 넘어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권리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기독교 보수층들을 겨냥한 발언도 잊지 않았다.

미트 롬니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지난 4월 이후 부통령 후보 인선 작업에 거의 4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술한 정

준비하고 있다(The Path to Prosperity: A Blueprint for American Renewal, House Budget Committee - Fiscal Year 2013 Budget Resolution). 따라서 공화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고질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각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롬니 후보는 11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자리에서도 미국의 경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자신과 라이언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가 번영을 이루고 모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라이언 의원의 경우 공화당 내에서 이른바 '오바마의 저격수'로 명성을 얻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선 조정 논의 과정에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면서 특유의 거친 입담과 독심력으로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평정심을 잃게 만든 일화는 유명하다.

이밖에 라이언 의원은 롬니가 강경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일부의 비판을 끌어안기에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이 여성층이나, 중남미계를 중심으로 한 이민층 유권자들의 표심보다 더욱 우선시 되는 공화당의 핵심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낙승을 거뒀던 위스콘신 주에서 롬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언 의원은 공화당 내부에서 과묵한 기독교관과

롬니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층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롬니와는 달리 라이언 의원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읜 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민 출신이다. 롬니가 공화당에서 중도로 분류돼 보수진영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지 못했던 반면 라이언은 정통 보수 진영으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양측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2 대선은 진보와 보수 경쟁 세력의 일대 충돌로, 먼저 경제 회복 정책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미언론의 분석이다

### <1면에서 계속>

'회복탄력성'을 간단히 설명하면, 고무 밴드를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평평한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를 견뎌내는 회복탄력성이 높지 않다면, 계속된 긴장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계 상태에 이르러 각종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반면에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질병, 이혼, 실직, 재정난, 학대, 전쟁, 테러 등 만성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용기 있게 긍정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불안,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으로, 더욱 긴장과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곧 사랑, 감사, 연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며 우리의 자아가 확대되면서 긴장이 완화되게 된다.

현대인들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복잡한 사회 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으로 '회복탄력성'은 현대인이 반드시 키워야 할 마음의 힘이 자, 영혼의 자가 치유력이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미국 주정부 학위 인가



#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가을학기  
학생모집

www.mrtsusa.org

2012년 8월 6일(월) 개강예배

제출서류

- 1. 입학원서통(본교 소정양식)
- 2. 담임목사 추천서통(본교 소정양식)
- 3. 신앙과 장래목표에 관한 자술서통
- 4. 최종 학교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통

원서 제출처

우편주소: MRTCS  
P.O.Box 741459 Los Angeles, CA 90004 U.S.A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 ◆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신학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 음악 학사  
고졸 및 동등학력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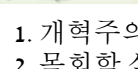
### ◆ 대학원과정(Master) 3년

기독교 교육석사  
종교 음악 석사  
신학석사  
목회신학 석사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 박사과정(Doctor) 2년

기독교 교육학 박사  
목회신학 박사  
신학 박사  
종교철학 박사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 ★ 학교의 특징과 졸업 후 특전 ★



- 1. 개혁주의 신학의 저명한 교수진을 통해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함
- 2. 목회학 석사과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강도사 고시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3. 해외거주자, 특히 중국 거주자는 특별장학금 및 전반적인 목회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목회자 선교사에게는 선별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급함)
- 4. 선교사 지원자는 선교사 파송을 받을 수 있고 목회자는 사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교주소 및 연락처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교무처:(323)622-8376 / 교학처직통:(323)428-7878 / 팩스:(323)-932-0788  
한국: 070-7883-3011 / 02-888-0672 / 이-메일: mrtsusa@hotmail.com



# 현대 교회, 다양한 내러티브 과잉에 직면

## CT, '내러티브' 나 '스토리텔링' 으로만 성경 읽을 때 문제점 제기

(1면에서 계속)

서구 사회는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거부했다. 그렇게 보편적 줄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줄거리를 하나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아니, 하나가 아니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현실적이고 진실한 내용을, 그렇게 믿을 만한 내용을 한 이야기에 전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서구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내러티브는 전능한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안에 새겨 넣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도리어 언어와 내러티브는 삶의 무의미함에 직면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찾는데 사용된다.



반복, 비유, 이미지 등의 문학적 장치에도 의존한다. 그러나 지금 확산된 내러티브 움직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선택한 시, 애가, 서간, 선언, 예언 등과 같은 다른 문학 장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도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라나 이런 책들이 주장하는 죽음과 심판, 천국, 지옥에 관한 내용은 성경의 설명과 상당히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반드시 일어난 사실만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된 소설 '오두막(The Shack)'은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에요"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경험적 진실이 아닌 허구적 내러티브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실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오두막'의 저자 윌리엄 폴이 창조한, 킵킵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 플라넷 넷을 입은 쾌활한 목수의 모습을 한 예수의 이미지를 받아들였다.

'내러티브 신학'이나 '이미징 교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크리스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요나에게 임하니라...", "한 농부가 들만에 나가...", "부자도 죽어...아브라함의 품에...", "아들이 들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데려가자, 예수는 밖으로 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와 같은 이야기와 사건을 알았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성경 이야기와 사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그저 성경 이야기를 암기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에 담긴, 어찌 보면 터무니없고 불가해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보여주는 이야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민족을 모은 하나님 이야기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있을법하지 않은 사나운 영웅과, 무시무시한 전투, 웃음거리가 된 예언자, 꽃같이 버티는 성인들, 기적적 치유, 발을 씻기는 왕, 십자가에서 피 흘린 하나님, 텅 빈 무덤, 최후의 분노와 영광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적인 대단원, 문이 활짝 열린 새 성이 내려와 이제 아들과 딸이라 불리며, 죄에서 씻긴 사람들이 그 어떤 빛도 필요 없이 오직 어린 양의 빛에 의지해 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모든 사람이 그 성에 들지는 못할 것이다. 마음 놓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스토리다. 우리는 손에 땀을 흘려 쓴 편지집으로서가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찾는 자로서 이 이야기를 읽으라고 초대받았다. 거슬리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든, 잠시 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든, 이 내러티브를 다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러티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초대받았다.

성경을 어떤 장르나 의제, 필요의 렌즈를 통해 읽으면 필연적으로 왜곡이 일어난다. 현 문화에 만연한 반성경적인 교회에서 '간증'을 포함하여 각종 사역과 강연 활동을 시작했다. 그

이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이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이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이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 대안 없는 시리아 내전

## 이코노미스트, '혼란에 대처할 대안이 있는가?' 보도

서방과 미국은 시리아 총리가 이탈하는 것을 시리아 봉기가 압박한 것으로 보았지만 8월 4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혀 다른 보도를 했다. 알레포에서 정부군이 반군을 몰아냈고 살라딘에서도 반군이 후퇴했다. 살라딘은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 십자군을 몰리친 무슬림들의 영웅이다. 7년 전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화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서구 기독교를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에서 보면 살라딘은 예루살렘의 임시 지휘관과 담판한다. 시민들이 조용히 철수하면 결코 죽이지 않고 퇴각로를 열어주겠다고. 살라딘은 쿠르드족의 시리아인으로 시리아가 자랑하는 영웅이다.

지금 반군은 생각보다 조직이나 무기에서 정부군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우디의 지원은 말만의 지원이고 카타르의 반탱크 화기와 로켓 프롤렐러 슈류탄 보급은 레바논을 경유하는데, 현대화된 무기는 없다. 실탄도 부족한 형편이다. 반면 이란, 러시아, 중국이 시리아를 크게 지원하고 있다. 이란 관광객이 반군 포로가 됐는데, 그들은 정부군을 돕는 이란인 지원병들도 본다. 특히 수천명의 시리아 주재 러시아 군인은 군대와 기술로 시리아 정부군을 크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군의 정예부대인 공화국 수비대와 마헬 아사드인 아사드 대통령의 "검 없는 형제"가 지휘하는 제4기갑사단은 대부분 알라위 신자들이며(아사드 대통령도 알라위 신자임). 현대 무기로 무장한 이들 5만 명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군대라는 것이다. 정부군 병력은 28만 명인데, 지하디스트를 제외한 반군 숫자는 5만 명에 조직력이 약하다.

아사드 봉고이후의 시리아는 더 복잡하다. 이미 알카에다와 연관된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의 레이한리에 "위대한 시리아를 위한 이방인"(Strangers for a Greater Syria)이라는 조직체를 형성했다.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 강력한 수니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체 외에 구원전선이라는 단체와 위대한 시리아 해방이라는 단체는 더 배타적인 그룹이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아사드가 붕괴하면 "아사드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알라위와 평화적 공존은 기대할 수 없다. 한 반군 지도자는 "순교자의 문화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모른다"고 코멘트 했다.

별써 아사드의 반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으킨 혁명이 납치당했다고 원망한다. 세속주의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자유 시리아군(Free Syria Army)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 성경을 하나의 장르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도 주셨지만 격언과 시, 율법과 훈계, 예언과 애가, 수수께끼와 편지, 환상과 계보, 기도 역시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성경의 모든 책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고후4:2)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음주의 역사학자 마크 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Jesus Christ and the Life of the Mind)에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교리적 신조(doctrinal creed)가 필요한 시기라고 일깨운다. 왜냐하면 교리적 신조는 "기독교의 정수를 정의하는 주제들에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

리는 성경 이야기가 단독으로는 못하는 일을 한다. 교리는 사건의 시공 간격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결론으로, 피츠버그신학교 험프리(E Humphrey)신약학 교수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서 성경 스토리 속의 하나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지 않는지, 글로 적힌 텍스트에 대한 우리 사랑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내러티브 신학에 마음을 뺏겨 현혹되다보면 스토리 안팎에서 살아 숨 쉬는 존재를 도외시할 위험이 있다. 험프리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스토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스토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 "변증론과 교리, 조직신학과 명제적 진리 등 전통적 기독교신앙형성요소 거부 범주 형성"

하나님의 스토리와 경쟁하고 대립하는 내러티브에는 순전히 개인적인 것도 있고, 좀 더 권위 있는 것도 있다. 현재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내러티브의 과잉에 직면해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고 따라야 할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스토리를 선택하고 있다고 스텐리 하우어워스, 마이클 고헌, 에디스 험프리 같은 여러 신학자가 지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우리 문화가 제공하는 반기독교적 스토리, 그 소비주의적이고 우상숭배적이며 자기만족적인 플롯을 수용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시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지배적인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 신학이 확산되면서 성경의 언어와 문맥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깊어졌지만 이와 관련해 나온 상업적 생산품들은 '하나님의 스토리'에 거의 관심이 없다. 고등학생 정도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스토리는 벌어진 사건뿐 아니라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자체와, 은유, 묘사, 유추,

결국 내러티브 신학은 성경 스토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요약했다. 비내러티브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본문을 다시 썼다. 교회 내부에서 한동안 그런 개정 작업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교회와 목회자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 화제에 오른 일부 목회자는 오직 성경 스토리만으로 규정되는 기독교를 만들었다. '스토리'는 변증론과 교리, 조직 신학과 명제적 진리 등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던 요소들을 전부 거부하는 거의 배타적인 범주를 형성했다.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첫째도 둘째도 이야기다. 또한 랍 벨, 브라이언 맥클라렌, 더그 패짓을 비롯한 이미징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그 스토리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비난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보다 '더 나은 스토리'를 말하기 위해 고민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란 고정된 것도 절대적인 것

이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이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이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이 아니다. 이야기는 유동적이고, 화자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청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솔로몬전각교회(Solomon's Porch)의 패트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담임 조요한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 (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 호주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8월 20일 - 24일  
강의제목: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일 시: 2012년 8월 27일 - 31일  
강의제목: PM 853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 21세기 여성 지도력 개발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 장소: 시드니 한우리 선교센터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I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박사과정)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MA Courses(석사과정)
  -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Park,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인생 올림픽

런던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였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출전선수들에게는 4년 동안 힘써 갈고 닦은 훈련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런던올림픽은 우리 민족에게는 남다른 감동을 주는 것은 64년 전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초로 참석하게 된 역사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선전하여 종합5위에 올랐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가 열리기도 전에 마스크에 서는 메달을 획득할 유망주들을 예견하기도 하고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결정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목에 기대를 걸지만 특히 수영의 박태환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

다. 그의 컨디션과 준비과정이 탁월했기에 그의 우승은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격이라는 비보를 접하게 되니 참으로 실망과 좌절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이클 볼 전담코치와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국제수영연맹(FINA)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여 기다림 끝에 FINA로부터 판정변복을 통보받았습니다. FINA가 판정을 뒤엎은 건 25년여 만이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얻은 결선티켓. 하지만 소식을 접한 건 컨디션이 엉망이 된 이후였습니다. 박 선수에게 있어서의 3시간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영망이 된 컨디션이지만 힘을 다해 경기를 하여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만 명도 되지 않는 수영인구의 대한민국에서 '마린보이'라 불리는 박 선수는 온 국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수를 향해 레이스를 펼치는 우리

는 수영선수입니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믿는 자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기준입니다.

한국 축구가 8강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들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림픽 출전 64년 만에 기적과 같은 결실을 거둔 축구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되었고 드디어 지난 10일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온 국민의 큰 기쁨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위낙 실력이 출중했던 영국이 그것도 연합팀을 특별히 구성해서 출전한 영국 팀을 이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축구 전, 후반전이 끝나고 연장전 30분마저 무승부로 끝나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한 골 차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의 경기는 참으로 멋진 진기명기의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속이 시원하다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목이 터져라 응원한 고국의 국민들과

이곳 이민자들은 물론 현장에서 응원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 망신을 시킨 팀도 있어 슬프게 합니다. 여자 배드민턴 팀이 결승전에서 강적과의 경기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실격 당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하기 위해 일부러 네트를 만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경기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자국 선수와의 경기를 피하거나 쉬운 상대를 만나기 위한 '고의패배' 시도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31일 여자 복식 조별리그의 한국-중국 선수간 경기와 한국-인도네시아 선수간 경기입니다. 한국선수 4명과 중국의 2명, 인도네시아의 2명 등 총 8명이 실격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알뜰한 속임수를 부리는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공한 사람들

이 있는가 하면 실패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인생은 '일생'이라 말합니다. 한 번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앞'은 있지만 '뒤'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실패하면 4년 뒤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들은 배드민턴선수들과 같이 그동안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칙들을 익히고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하듯이 인생의 올림픽에서도 피나는 훈련과 삶의 절제를 통해 보다 성숙된 인생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승리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 푸/ 른/ 초/ 장

김만수 목사  
(새생명선교회)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환경만을 핑계대고 주님을 가까이 보기 원하는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 2.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심 (5-7절)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실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드리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말에 너무 감격하였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까이 오시는 일은 정말로 감격적인

결하려면 힘이 너무 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저 우리는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의 부족한 면도 채워주시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도와줍니다.

## 3.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룸 (8-10절)

주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오셨을 때 진실로 구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하기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께서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심히 근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소유를 절반이나 팔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삭개오의 결심이라기보다, 회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사람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삭개오의 구원 누가복음 19:1-10

삭개오의 이야기는 모든 구원받기 원하는 자에게 귀한 분이 됩니다. 본래 삭개오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구원과는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 후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고, 베드로의 동역자로 있다가 가이사라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는 예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삭개오의 아래에서 일하는 여러 명의 세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주로 로마정부의 앞잡이로 일해야 하니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라는 직책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기 때문이지요.

여리고는 국경도시였으므로 무역이 활발하여 아마도 세금이 많이 걷혔을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향료의 산지가 되어서 세금이 더욱 많이 걷혔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 삭개오가 부자라는 말을 보아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드렸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정부와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자유로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라는 직책은 부자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 1.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원함 (3-4절)

삭개오가 이렇게 부자로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재물이 사람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된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원했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도 했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만 핑계대고 있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뿔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뿔나무에 올라간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세리장과 같은 점잖은 사람이 뿔나무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원하였고, 영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뿔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

너무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시면서 친절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같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절을 베풀시면서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상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20에 보면,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했

입니다. 이것은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느냐가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나 혼자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청소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해

# 퀸즈장로교회 아카데미 개강 뉴욕주 시험준비



- ▶ 최고의 교육환경
- ▶ 최고의 학습지도
- ▶ 최고의 강사진

## 3가지 특별 명문 아카데미

**퀸즈 아카데미**

- 수업 대상 : PK~12th Grade (월~금 / 수시등록)
- Group 및 Tutor Class : Reading, Writing, Math, Regents & all Subjects
- SHSAT / SAT Class : Critical Reading, Math & Writing

**방과후 학교**

- 수업 대상 : PK~8th Grade (월~금/수시등록) / 정원 제한: 60명
- 수업 시간 : 3시~6시 (Half day, School Closed day 수업함)
- 수업 내용 : 숙제, ELA, Math, Project, Statewide Test 지도
- Reading, Vocabulary, Writing & all subjects
- 등록금 : \$350 (학년, 스넵, 교재비 포함) / 형제할인
- 예능 교실 : 피아노, 미술, 발레, 기타, 드럼, vocal

**Reading & Writing 교실**

대상: 모든 학년  
수업: 월~금  
시간: 시간 조절 가능  
지도: 일대일 및 소그룹  
각 학년보다 일선 Reading Level과 Vocabulary, Creative Writing에 이르기 까지 철저히 지도합니다

**한국학교**

- 수업 대상 : 3살 반 ~ 12학년 (정원제한)
- 수업 시간 : 9시 30분 ~ 12시 30분(한국학교) 12시 30분 ~ 2시 (예능교실)
- 수업 내용 : 한글/ 한국 문화/역사/민속놀이
- 등록금 : \$70(한학기) / 교재비 별도
- 예능 교실 : 미술, 발레, 태권도, 종이접기, 발레, 기타, 드럼

★ 특별히 학교 숙제가 문제 있거나 Regents, Tutor 필요로 하는 학생들 환영합니다.

학생들 각 개인의 첫 진단 평가시험을 통해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식 지도로 모든 성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합니다.

등록처 및 문의처 : 210호실 ☎ 718)886-4646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우리의 세대는 전세계적으로 부패한 시대이다. 한국이 또 다시 부패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시끄럽다. 현직 대통령의 형을 포함한 측근들의 부패로 현직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여당은 공천에 대한 금품수수, 야당의 원내대표도 뇌물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부패에 대한 폭로와 구속으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친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후 현대판 유배를 가기도 하고, 또한 부패혐의 때문에 자살까지 한 기상천외한 일도 있었다.

물론 부정부패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부정부패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 즉 70%의 나라의 CPI지수가 5.0미만이며, 개발도상국들은 90% 이상이 5.0미만이다. 온통 부패했다는 말이다. CPI숫자를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코드로 변환시켜 보았더니 아시아도, 중앙아시아도, 동구권도, 남아메리카 대륙도, 아프리카도 온통 새빨간다. 온통 부패했다는 말이다. 크게 말하면 그나마 기독교 국가들, 혹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의 부패도는 많이 낮은 편이다.

한국의 시사와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011대한민국 부패지수를 측정해 보았다. 국내의 87.5%

미 해당국들의 부패의 정도가 심각함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 세계 나라들에게 이집트는 물론이고, 리비아와 예멘은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어진다.

국가들이 부패방지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레바논은 법이 있음에도 CPI가 2.5이고, 요즈음에 문제가 되는 시리아는 2.9로 순위가 129위로 부패한 나라들이다. 이라크는 CPI가 1.8로서 극도의 부패함이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만연되어져 있다. 이런 만연된 부정부패는 이라크 문제가 미국이 군수물자나 방위능력을 증진시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의 나라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오직 보츠와나를 포함한 3-4개의 나라들만이 부패인식지수가 5.0이상일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부패의 온상이다. 아메리카대륙도 마찬가지이다. 183개국 중에서 32개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 그중에 2/3 이상의 나라들이 세계순위에서 중간이상의 부패도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의 문제는

이 항상 악하다”(창6:5) 하했다.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창8:21).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왔고, 바벨탑의 혼돈이 생겼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창13:13).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미 부패했다(출32:7).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렘17:7). 성경은 단 한마디도 틀림이 없다.

왜 부패한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인생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행이 가증하며 악을 행한다(시14:1, 53:1). 부패는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시작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문명의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와 탐심과 부패의 노예가 된다. 마치 썩은 것에 파리가 꼬이듯이 하나님을 버릴 때 부패는 자동적으로 찾아온다.

하지만 믿는 우리도 교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성가대 지휘자로 교회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윗찬양대의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이 찬양대원이 될 수 있었는지요?

**A:** 구약에서 성전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30세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정년은 50세였습니다(민4:3). 그러나 25세가 되면 성막 일을 하는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민8:24). 다윗 때는 그 하한선을 20세로 낮추었습니다(대상23:24). 그런데 다윗 때에 성전봉사를 위해 소집되었던 레위인의 총수는 3만8천명이었는데 이들 중 여호와의 전 사무를 담당한 자가 24000명, 유사와 재판관이 6000명, 성전문지기 4000명, 그리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봉사직무는 다양하며 어느 일이든지 직무에 귀천이 없습니다. 특히 성전 주위를 감시하고 지키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문지기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천하게 보일지 모르나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 모세시대의 성막에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희생과 제사 드리는 피 냄새만 날 뿐 오직 엄숙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약속한 것이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그것을 성취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에는 예배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 다윗시대 찬양대는 4천명...지도자는 '골방과 골몰' 전문성 지켜야

찬양대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선견자들이었습니다(역대하25:5). 선견자라는 말은 환상을 보는 자라는 말로 예언자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만큼 신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찬양사역을 맡은 지도자들은 음악적인 면에도 탁월해야 되지만 말씀에도 익숙하고(5절) 기도하는 신령한 은사도 있는 성령충만한 사역자가 찬양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신령한 영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찬양대의 지휘자들로서 지도자들이며 4000명의 성가대를 지도하기 위해 288인이라는 중간 지도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을 열심히 가르쳐 그들로 4000명의 성가대원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인이라”(역대상25:7). 역대상 9장 33절을 읽어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무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 하였더라”

여기를 보면 전문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전문성의 원리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은 골방과 골몰입니다. 골방에 거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자기 직무에 골몰하므로 전적으로 그 일에만 헌신하였습니다. 교회의 찬양대나 찬양사역자들은 기도하여 곡 선정을 잘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문성에 대해 남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 글로벌 부패의 시대

뉴욕빌라델피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로 인하여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 흔들리고 시민혁명이 일어난다. 부정부패는 권력을 설명하는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다. 부패하지 않은 정권이 없고, 부패하지 않은 권력이 없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한다. 비록 그것이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새로운 용어도 나왔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이다. CPI는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인식정도를 뜻한다. 전세계의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 조사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TI)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 순위를 발표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4년에 조사를 시작했고 1995년부터 CPI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TI의 Cobus de Swardt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각성은 부패한 나라와 지도자들을 경고하며 이것이 성공할 경우 자국민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부패인식지수 CPI는 숫자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10에서 가장 부패한 것을 나타내는 0의 범위에서

가 “한국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한국의 부패정도는 어느 수준일까? 국제투명성기구가 2011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183개국 중 43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아래로 떨어졌다. OECD국가 중에서는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회원국의 평균 CPI 6.97에 비교해도 한국은 5.4로 더 많이 부패해 있다고 말한다.

가장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청렴한 나라의 1위는 뉴질랜드(9.5)이다. 그 다음이 덴마크, 핀란드(9.4), 스웨덴(9.3), 싱가포르(9.2), 노르웨이(9.0), 네델란드(8.9),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8.8), 10위는 캐나다(8.7) 순서이다. 반면에 가장 부패한 나라는 소말리아와 북한(1.0)이 불명예스러운 부패국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4위로 7.1이고, 일본은 8.0으로 14위이다. 한국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도 부패의 정도가 더 심하다. CPI는 한국의 부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먼저 큰 그림을 보기위해서 대륙별로 살펴보자.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은 CPI가 4.0 이하로 부패가 매우 심했다. TI에서는 아랍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시민혁명이 ‘아랍의 봄’이 있기 전에 이

전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TI에서는 세계적 회사별로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했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가장 부패한 회사는 Bank of China(1.1)이고, 그다음은 부패한 회사들은 Honda Motor와 China Construction Bank가 1.9로, 그리고 Amazon.com과 Toyota Motor는 지수가 2.8이다. 물론, 세계적인 회사들이 부도덕한 재정관리와 부패로 세계경제에 큰 위기를 몰고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정도도 부패가 심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다.

성경은 부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세계적인 부패인식지수의 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롬3:20),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1:20)라고 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부패를 결단코 미화하지도 당연시하지도 않는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의 역사는 부패의 역사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죄로 부패하여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이다.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패할 수 있다(사1:4). 선지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와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또한 권력이 있어서만 부패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계층의 부패는 전세계의 절망적인 현주소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전 안에서도 부패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편의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졌다. 이권이 관심거리였다.

부패는 자생능력이 없다. 부패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 부패는 적절되어야 하며, 씻겨져야 하며,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박국은 부흥을 간구했다. 주님의 일으키시는 회개의 운동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만이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으로 부패를 버리게 하고 살게 한다.

나는 부패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나의 영적 부패인식지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부패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실 때 그 점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겸손으로 동역하실 전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주요사역: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
-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 영어와 한국어 사역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신앙간증문,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목회자 추천서 2부 (설기면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 통지 합니다.)

○제출기한: 2012년 9월 30일

○제출처: 버지니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담당: 서기 백원길 장로, 703-585-6355)  
Eld. Won Kil Paik  
6355 Edsall Rd. Alexandria, VA 22312

○제출방법: 우편이나 이메일 wonpaik@hotmail.com  
○교회주소: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  
○교회전화: 703-922-6064

## 버지니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민철기

#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 자 격 ●

1. 정규 침례 신학교 (M.Div)를 졸업 하시고 남 침례 교단(s.b.c)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로 사역이 가능한 분
3. 목회 경력 5년 이상(침례 교회)
4.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유자로 40-50세 초반

### ● 제출서류 ●

1. 이력 및 학력 증명서, 목사 안수증
2. 목회 소명 및 비전
3. 목회자 추천서(추천인2명)
4. 본인 및 가족 사진
5. 최근 설교(한국어, 영어)2편씩 Dvd, 동영상 Web ad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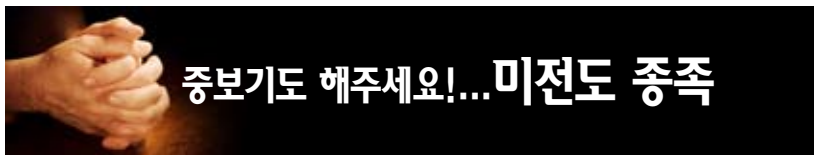
### ● 제출처 ●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 (인 영군 목사)  
Rev. Young K. Ahn, 118 N. Ormond Ave.  
Havertown, Pa. 19083  
(610) 789-3077, (484)716-1185  
E-mail: ykahn104@gmail.com, ok\_ahn@hotmail.com  
제출 기한: 2012년 8월 31일 까지

##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

담임 목사 및 청빙 위원회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라오스의 사에크(SAEK)



사에크(타이 세크)족은 라오스 중부의 메콩강 부근에 거주하며 일부는 태국 북동부와 베트남 국경 부근에 산다. 사에크족은 사에크라고 불리는 디악(Diak)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북부 타이어계에 속한다. 많은 사에크족 사람들은 라오스어도 함께 사용한다.

끊임없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타이족은 중국에서 남쪽으로 이주

했고 그러면서 또한 많은 종족들을 정복했다. 13세기경 마침내 라오스 땅에 정착했는데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사에크족도 광범위한 문화적 접촉을 경험하면서 라오족과 타이족 문화에 동화되었다. 여러 차례 전쟁의 역사를 거친 라오스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의 정치적 경쟁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 라오스인들의 분열이 시작됐고 또한 태국도 정치적 쿠데타와 소모를 겪으면서 많은 정치적 변화들을 경험했다. 수년에 걸친 처절한 전쟁들이 사에크족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

쳤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삶의 모습

사에크족은 사회 전반에 걸쳐 타어와 라오족문화를 흡수했다. 그러나 잘 보존된 사에크 여성들의 "원형 춤(round dances)"은 여전히 사에크족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

사에크족의 가옥은 전형적으로 대말 위에 나무나 대나무로 지어진다(고상식 가옥). 집집마다 가금류(닭, 돼지, 염소 등)들이 고상식으로 지어진 집 아래 공간에서 자유롭게 키워진다. 농지는 보통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쌀이 사에크족의 주요 농작물이라는 하지만 자체 소비와 판매를 위해 다양한 다른 농작물들도 재배한다.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일도 중요한 활동에 속한다. 사에크족은 문순기(우기)에 쏟아지는 강우량

만으로 논과 밭에 필요한 물을 충족한다. 사에크족 남성들은 씨뿌리기 위해 논밭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한다. 반면 여성들은 논밭의 잡초를 뽑고 추수를 도우며, 상품으로 판매할 것들을 나른다. 아주 극소수의 사에크족만이 도시로 이주한다. 그들은 라오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고기와 야채들을 옷이나 소금과 교환한다. 사에크족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는 촌락이다. 각 촌락들은 각기 독립적이며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수장이 마을마다 있다. 부계 중심의 핵가족 또한 사에크족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오스에 살고 있는 소(So)족과 통혼하는 것은 이미 사에크 사회의 일반화된 풍습이다.

사에크족은 라오스 사회의 주류 계층에서 격리돼있기 때문에 보다 발달된 문화, 경제, 교육 기회를 향

상 갈구하고 있다. 1950년대 이래로 라오족, 북부베트남, 중국인들의 지원을 힘입은 공산주의 군대가 촌락민들의 생활을 혼란케 했다. 정부군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계속되는 전투로 사에크족 사회는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상처를 갖게 됐다.

#### 신앙

주변국들의 강한 불교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의 사에크족 대부분은 자신들의 전통 민속종교를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조상숭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상신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이 영혼들을 잘 달래야만 한다. 자연계에 속한 다양한 영혼들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또한 각 촌락마다 "수호신(guardian spirit)"이 있다고 믿는다.

#### 필요로 하는 것들

1980년대 이래 라오스와 베트남 공산군대의 압제는 태국 북동부 지방에 혼란을 야기 시켰다. 특히 타이 사에크족이 많이 살고 있는 나콘파놈(Nakorn Panom) 주에 큰 타격을 주었다. 사에크족 사람들은 라오족이나 태국정부보다는 자신들의 촌락에 깊은 충성심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사에크족이 라오스와 깊이 관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사에크족은 전쟁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정부관계자들을 대할 때는 보다 나은 교육과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 라오스와 태국에 사는 수천명의 사에크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한 단체뿐이다. 현재 사에크어로 된 성경이나 기독교방송은 없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유목민 자녀위한 '낙타도서관' 인기

30년 넘게 에티오피아에서 구호사업을 펼쳐 온 국제 세이브더칠드런이 에티오피아 유목민 아이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시작한 '찾아가는 낙타도서관'이 유목민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선물해주고 있다.



'찾아가는 낙타 도서관'은 '3낙타 1조'로 구성된다. 무더위 속에 두 마리의 낙타가 200여권의 책을 각각 한 상자씩 등에 싣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친 낙타의 대타로 대기하면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닌다. 낙타가 유목민 마을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일, 한 마을에서 15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머물고 낙타와 목부(牧夫), 책을 담당하는 사서도 그 기간에는 휴식을 취한다.

낙타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유목민 아이들은 자신이 읽고 난 책을 서로 교환해서 읽기도 하고 '책 클럽'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등 그야말로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다. 소말리 마이스 지역에 사는 할리모(14)도 그 중 한 명이다. 할리모는 '아르말(Armale) 기초교육대안학교센터'(이동식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 불과 몇 달 사이에 글자를 배웠다. 글을 알게 되니 책 읽는 욕심이 생겼다. 낙타도서관이 오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뒤에는 며칠 동안은 마음껏 책을 읽는다.

지난해 11월 낙타도서관사업 지원을 시작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현재 소말리 지역의 아프템(Af-dem), 메이소(Meiso) 구역의 5개 유목민 마을과 40개의 기초교육대안학교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낙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지원한 낙타도서관을 통해 만난 아이들은 3000명이 넘는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 탈북자 지원 전재귀 선교사 36일째 역류

중국에서 우연히 만난 탈북자들을 돕던 전재귀(51·사진) 선교사가 36일째 중국 공안에 억류된 사실이 밝혀져 한-중 외교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독교사회책임과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에 따르면 예정 국제합동 부산하나로교회 소속인 전 선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에서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해오다 지난 7월 9일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체포됐다.



지난 3월 우연히 알게 된 5명의 탈북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외교통상부 확인 결과, 전 선교사는 중국 산둥성 변방부대 무장경찰 당국에 '탈북자밀입국알선죄'로 체포돼 현재 산둥성 엔타이 구치소에서 조사받고 있다.

전 선교사의 가족들은 급히 중국을 방문, 사대 파악을 위해 면회를 요청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영치금도 한국 영사를 통해 접수하라며 거절당한 상태다. 가족들은 현재 친교도 영사관을 통해 사대 파악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전 선교사의 가족들은 기독교사회책임과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전 선교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혹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2시 서울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갖기로 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체포 이후 한 달 만에 가진 영사면담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전 선교사를 체포·연행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고 두 차례나 숨이 멎을 정도로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그레이엄 목사 기관지염 입원

빌리 그레이엄(사진) 목사가 11일 저녁 기관지염 증세로 입원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인근 선교병원 측이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선교병원은 그레이엄 목사의 개인 대변인 래리 로스

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목사가 기관지염으로 추정되는 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밝혔다. 호흡기내과 데이비드 푸치 전문의는 "그레이엄 목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매우 안정적"이라며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 대변인은 "TV 방송을 통해 손자 윌 그레이엄의 실고를 시정하는 등 의식에도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폐렴 증세로 입원하기도 했던 그레이엄 목사는 그동안 자택에서 책을 집필해왔다.

#### 월드비전, 양학선 10년간 후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한국 제조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에게 월드비전 무진복지관을 통해 후원받아왔다고 12일 밝혔다.



양 선수의 어머니인 기숙향씨는 월드비전 복지관 관계자들을 만나 "후원해주셨던 국내 후원자분들, 지속적으로 도와주신 월드비전 무진복지관 선생님들 모두 정말 감사하다"며 "학선처럼 형편은 어렵지만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도 학선을 보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선수와 형, 가족들은 2001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1년까지 급식비, 의료비, 생계비, 장학금 등을 국내 후원자들과 월드비전으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양 선수를 2001년부터 10년간 후원했던 이성민(43)씨는 "아이들과 함께 TV중계를 보면서 양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며 "처음 후원할 때는 체조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메달 작은 후원금을 보냈을 뿐인데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며 "우리 아이들도 양 선수를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선수가 후원자들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세계대회 때는 아쉽게 4등에 그쳤지만 후원자들이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쉬운 대회 때 1등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서 올림픽 무대에서 꼭 금메달 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라며 이번 런던올림픽 금메달

#### 나이지리아 교회 또 테러공격 당해

이슬람과 기독교 간 종교갈등을 빚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또 다시 교회를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했다.



나이지리아 군 당국은 중부 코기주 오펜 지역의 한 교회에서 지난 6일 밤 예배를 드리던 중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이 교회 목사 등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선 단체는 없지만 급진 이슬람 단체 보코 하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알카에다, 소말리아 아이들 자폭테러 이용

소말리아 어린이들이 알카에다에 납치돼 쇠사슬에 묶인 채 자살폭탄 요원으로 길러지고 있다고 연합뉴스 인터넷판이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13일자를 인용 보도했다.



테러 조사관 닐 도일은 소말리아 정부가 모가디슈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양성 학교를 급습할 때 동행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에 나온 아이들은 모두 10세 이하이고 심지어 7세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부모 대부분은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알카에다와 연결된 소말리아 테러조직인 알샤바브의 조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자살폭탄을 터뜨려 순교하면 천국에 간다고 교육하고 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침대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교사들은 이들이 수업을 빼먹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말리아 정부는 최근 수 개월간 이와같은 테러리스트 양성 학교를 불시 단속해서 200명을 체포했다.

닐 도일은 선데이미러와 인터뷰에서 "알샤바브가 소년 병사와 자살폭탄 공격요원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바브는 정부군의 합동작전에 밀려 모가디슈에서 추출됐으며 이후 재기를 꾀하는 중이다. 사진이 공개되기 며칠 전 모가디슈에서는 알샤바브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원격조정 폭탄 테러로 소말리아 정부군 8명이 희생되기

매일 기도회와 매월 정기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일시: 2012년 8월 16일(목, 저녁) ~ 23일(목, 저녁)  
(오전 10:30, 저녁 7:30) 주일제외

# 8월 정기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목사



갈멜산금식기도원(한양·강화·LA)담임  
다사원대학교경영연구소 /GST대표/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ORU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신앙을 위한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안 내 카타리나와 W8th 코리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개인 이혼과 저역으로 베일기도회와 베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본 인도하는 매월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산마주의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척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성경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 모든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추게 되어 사역자들은 위도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 306-4912



그래도 하나님은 신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를 써줄 것입니다. 자기도 기도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 영혼과 심신, 생활의 큰 영역 중전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의 불길에 전파되는 시냇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거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 응답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처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피종전목사(남서물동교회)
- 이필자목사(갈보리교회)
- 송종길목사(신원교회)
- 피영민목사(감동중앙침례교회)
- 과우현목사(레디니교회)
- 유관재목사(성광교회)

1982년에 시작된 갈멜산금식기도원은 365일 언제나 기도성회가 있으며 매주 목, 금, 토요일은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재 갈멜산 금식기도원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개교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매주간 약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기도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역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그리고 사제가 필요로 하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www.galmelsan.or.kr  
430-040 경기도안양시민안구석수1동238-14  
Tel (031) 472-7212-6 Fax (031) 472-7211



www.galmelsan.com  
437-853 인천광역시강화군암도면하곡리 26-3번지  
Tel (032) 937-9724-6 Fax (032) 937-9727



선교사위원봉분내기  
1998년부터 매년 성탄절에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 특/별/기/고

## 이슬람국가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 교회지도자 양성(하)



노봉린 박사 (Concordia Seminary, Th.D.)

3. 종교자유를 허락하지만 아직도 반 기독교적 압력이 강한 이슬람국가들  
A.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에 참석하지 않고 무슬림이만(목사)을 보내 이슬람신앙을 유지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근래에 이슬람 대 기독교 충돌이 날이 늘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한된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교회지도자 양성은 수적

학교가 ATA인가를 받고 있다. 이 두 나라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들이 ATA의 인가를 받고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

으므로 자국에서나 외국에 있는 AGST와 신학대학원을 이용하여 최고의 교회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4. 무슬림 인구가 소수인 국가들  
A.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

적지 않은 수의 무슬림이 아세아의 여러 나라에 소수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다. 싱가포르(14%), 인도(12%), 태국(7.9%), 필리핀(5.7%) 등 한국에도 35,000명, 중국(2%)에 무슬림이 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부르짖고 있다. 한 평론가는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수주의 이슬람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Muslim Brotherhood은 민주주의를 한 개의 다리로 보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들

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전도하여 많은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전략

현재 한국신교사 24,000명이 17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선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한국의 이슬람권선교는 교역자양성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한국교회 선교운동은 지교회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 선교의 비전이 한국의 250개 신학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아에서 한국같이 신학교육이 발전된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 현재 한국에 신학박사, 기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학자의 수는 2,000명이 넘는다. 이제는 신학박사학위를 갖고도 한국에서 가르칠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의 신학자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슬람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평신도 제자 훈련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3. 한국신교사의 이슬람권 선교전략은 TEE 연장신학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평신도 신학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장만해야 하며 소그룹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Online신학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독교인의 네 개 레벨에 맞도록 만들어내어 필방받고 있는 이슬람지역의 교인들에게 공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

## 종교자유 허락된 이슬람국에 영성 강한 사역자 양육이 시급 발전된 신학교육...온라인 교육 활용 TEE연장신학교육 시도

가는 상태에 처해있다. 말레이시아는 2,800만 인구를 갖고 있으며 말레이인(42%), 중국인(31%), 인도인(9.4%)이 있고 종교는 무슬림(62.6%), 기독교인(9.4%), 힌두교인(6.2%)으로 되어 있다. 경제권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무슬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부의 이슬람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B. 신학교육을 강화시켜 충분한 지도자양성

으로 충분하며 영성이 강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학교육은 이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복음주의신학교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며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신학자와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속히 이루어야 한다.

아세아신학협회(ATA)는 아세아에 있는 1,300개 신학교를 중심으로 신학교 인가(Accreditation)를 수여하는 단체이다. 현재까지 아세아의 25개국에 있는 140개 신

학교를 중심으로 TEE를 사용하여 평신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ATA는 1985년 아세아신학대학원(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AGST)을 창설하여 네 개 학위(Th.M., Ph.D., Ed.D., D.Min.)를 수여해왔다. AGST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미얀마에서 진행되어왔으며 현재까지 약 200명의 아세아 신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발급하지 않

은 그 다리를 불살라 버린다"(월드, 7월28일자, p.38).

B. 무슬림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전도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이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타문화와 타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말 학교: 오전 11:00 어린이집: 오전 8:00 세례기도: 오전 10:00(1부), 오후 5:00(2부)</p> <p>Tel: (714) 948-2778 / Fax: (714) 948-378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 Church of the Cross</p>	<p><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213) 810-8822, Fax: (213) 810-193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26</p>	<p><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광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6777 1171 N. Broadway St., Azusa, CA 91701</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후 7:30</p> <p>Tel: (916) 719-2844, Fax: (916) 719-2228 1641 E. Figure St., Gardena, CA 90248</p>	<p><b>동문교회</b> 담임목사: 최재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213) 699-0825, Fax: (213) 692-9175 16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7</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nistries Center 대표: 권영자 목사 "세상이 밝아지기 전에 우리끼리 복음의 불을 켜는 일이다" 목요일: 오전 8:30 주일: 오후 2:00(2부) 세례기도: 오후 5:00</p> <p>Tel: (213) 722-7722 (한미 빌딩), Tel: (213) 219-8886 1257 Gabriel Garcia Marquez St., L.A., CA 90023</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213) 722-6880, (213) 722-6880 1355 E. Colton Ave., Pasadena, CA 91104</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213) 245-5887, Fax: (213) 245-5887 501 E. Lake St., La Habra, CA 90625</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저승덕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213) 380-8277, 8078 819 S. Western Ave., L.A., CA 90025</p>	<p><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경명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916) 344-4010 / E-mail: twofaith@comcast.net 18705 Harvard Ave., Elk Grove, CA 95624 www.2fc.org</p>	<p><b>메델란인교회</b> 담임목사: 손원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848) 554-4010 / E-mail: twofaith@comcast.net 18705 Harvard Ave., Elk Grove, CA 95624 www.2fc.org</p>	<p><b>민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진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604) 634-6780, Fax: (604) 634-6717 2126 13th St., Surrey, B.C., Canada, V2V 8P8</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626) 684-8214 1781 N. La Habra St., La Habra, CA 90621</p>	<p><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재경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626) 338-8777 1097 E. Beckle St., Covina, CA 91724</p>
<p><b>세계비전 교회</b> 담임목사: 김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714) 363-5887, Fax: (714) 363-5887 1824 Alhambra St., Northridge, CA 91329</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916) 445-9192, Fax: (916) 445-9827 824 N. Yorba Blvd., L.A., CA 90078</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저승덕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916) 344-4010 / E-mail: twofaith@comcast.net 18705 Harvard Ave., Elk Grove, CA 95624 www.2fc.org</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한종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916) 344-4010 / E-mail: twofaith@comcast.net 18705 Harvard Ave., Elk Grove, CA 95624 www.2fc.org</p>	<p><b>오렌지카운티재임망교회</b>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714) 389-3898 / Fax: (714) 373-3897 8203 Dole Ave., Westminster, CA 92682</p>	<p><b>오션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714) 389-3898 / Fax: (714) 373-3897 8203 Dole Ave., Westminster, CA 92682</p>	<p><b>힐즈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714) 389-3898 / Fax: (714) 373-3897 8203 Dole Ave., Westminster, CA 92682</p>
<p><b>은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714) 363-5887, Fax: (714) 363-5887 1824 Alhambra St., Northridge, CA 91329</p>	<p><b>인랜드교회</b> 담임목사: 박신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916) 445-9192, Fax: (916) 445-9827 824 N. Yorba Blvd., L.A., CA 90078</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심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916) 344-4010 / E-mail: twofaith@comcast.net 18705 Harvard Ave., Elk Grove, CA 95624 www.2fc.org</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준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916) 344-4010 / E-mail: twofaith@comcast.net 18705 Harvard Ave., Elk Grove, CA 95624 www.2fc.org</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626) 684-8214 1781 N. La Habra St., La Habra, CA 90621</p>	<p><b>로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1부), 오후 5:00(2부)</p> <p>Tel: (626) 684-8214 1781 N. La Habra St., La Habra, CA 90621</p>	<p><b>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들</b> L.A.: Tel: (323) 655-0048 Fax: (323) 655-0048 N.Y.: Tel: (718) 998-4400 Fax: (718) 998-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의 불을 켜는 일이다</p>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01. 왜 공룡 뼈들은 조각으로 발견될까?

화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화석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가장 흔한 화석은 조개류 화석이고 그 다음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물고기 화석이다. 그러나 공룡 화석을 비롯해서 육지동물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또, 조개나 물고기 화석들은 마치 살아 있는 실물처럼 생생한 모습으로 발견되지만 공룡 화석이나 육상 동물의 뼈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채로 몇 조각만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현상이므로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 뼈들이 100%인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유물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도 불과 몇 조각만 진짜이고 나머지는 가짜로 만들어 덧붙인 것이 대부분이다. 왜 공룡 뼈들은 조각으로 발견되는 것일까?

공룡 뼈들이 조각으로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 뼈 몇 개만 발견되는 것도 진화론자들에게는 화석에 대한 여러 가지 불가사의들 중에 하나다. 조개나 물고기는 생생한 모습의 화석을 남겼는데 왜 공룡은 뼈 몇 조각만을 남겨 두게 되었을까?

고기 화석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데 거의 모든 물고기 화석은 완벽한 뼈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죽은 물고기가 가라앉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흙에 묻히고, 수백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화 된다는 설명은 상상일 뿐 사

피해의 주원인은 강한 진동보다 순간적인 토양액화로 기초가 없어지는 것이다. 강진은 쓰나미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를 동반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흙과 돌들 심지어는 자동차만한 바위가 함께 움직이는 대형 사건이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이었음을 고려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때 만들어진 지층은 전 세계 육지의 약 80%를 덮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흐름을 혼탁류 혹은 물 아래서 흐르기 때문에 저탁류라 부른다.

물고기나 조개 화석은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 때 만들어진 것이다. 엄청난 양의 혼탁류가 움직이는 대형 사건이 있었을 당시 그 속에 살아 있던 조개나 물고기를 순간적으로 묻었다. 그리고 실리온 같은 광물질이 물고기와 조개의 조직 사이로 스며들어가게 되는데 적당한 압력과 온도에서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아주 짧은 몇 시간 안에 화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화석은 생물의 성분이 돌로 바뀐 것이 아니다. 생물의 성분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한다. 다만

이런 상태에서는 동물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육상동물화석이 적게 발견될 뿐 아니라 온전한 모습의 육상동물 화석은 물고기나 조개 화석에 비해 아주 희귀한 것이다.

성경은 물이 약 150일간 지구를 덮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 위에 떠 있던 동물들은 많이 부패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쓰나미에 맞아 뼈들이 심하게 부서지게 되었을 것이다. 물이 점점 바다로 물러가면서 어떤 곳에는 대형 자연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호수는 홍수 초기의 물 깊이에 비하면 아주 얇은 곳이다(폴로라도 고원에는 그랜드 캐년만 들어가지 않던 2 개의 대형 호수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남한의 약 80% 정도였다). 여기에서 작은 쓰나미와 혼탁류의 흐름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때 물에 떠 있다가 썩고 조각 난 육상 동물들의 신체 일부가 묻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물질이 주입되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조각조각의 공룡 화석이나 육상동물 화석이 된 것이다.

## 물고기 화석은 생생, 육지동물 화석은 조각 뿐 이유는 노아홍수 때문... 진화론으로 설명 안 돼



조개와 물고기 화석 vs 공룡 화석

이 화석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진화론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지구적심판 사건을 볼 수 있다.

1) 진화론적인 화석 설명  
물고기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교과서들은 이렇게 기록해 왔다. 물고기가 죽으면 아래로 가라앉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침전되는 흙에 묻히고, 수백만 년의 더 오랜 세월이 흘러 물고기 뼈들이 화석화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진화론에 근거한 그리고 진화론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 된 설명일 뿐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아마 몇 시간이 안 되어 다른 물고기들에게 먹혀 버려 이 세상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몇 달이 못 되어 썩어 없어져 형태를 알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살아 있는 듯 한 모습의 물

질 수 없다. 교과서와 같은 방법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생생한 모습의 물고기나 조개 화석들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백만 년의 긴 시간을 원하는 진화론자들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다!

그 조직 사이로 돌 성분이 스며들어가 그 모양을 보존하고 있는 것 뿐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지층 속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리고 생생한 모습의 물고기와 조개 화석들은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2) 성경 역사를 토대로 한 화석 설명  
성경은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을 전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였을 뿐 아니라 모든 깊은 샘이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다(창7:19; 7:11). 이럴 경우 강한 지진이 온 세상에 있었음에 틀림없고 이 때 땅이 흔들리고 흙과 돌들이 서로 떨어져 들뜨는 토양액화(liquefaction)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실제로 강진

3) 공룡 화석은 왜 조각으로 발견되는가?  
다시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화석은 일단 흙에 묻혀야 만들어진다. 그런데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물을 피해 달아날 수도 있고 물에 빠져도 밀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떠버린다. 그런데 노아홍수 심판 때 물의 평균 깊이는, 현재 바닷물의 양을 생각할 때, 거의 2400m쯤 되었을 것이다.

4) 화석들이 말해주는 것들  
창조된 세상은 완벽했다. 공룡은 창조 6일째 창조되어 아담의 다스림 아래 있었고 모두 다 초식 동물들이었다. 타락과 더불어 공룡들도 타락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공룡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물 위에 오랫동안 떠 있었던 동물들은 살이 썩고 격렬한 파도에 맞아 몸들이 부서졌고 홍수 후반기에 그 일부들이 땅에 묻혀 화석이 되었다. 인류가 만든 공룡 그림이나 조각 혹은 기록된 역사나 조각조각으로 발견되는 공룡 뼈들은 진화론을 통해 볼 때 불가사의한 것들이다. 하지만 사실인 성경을 통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과 증거들이다.

산산이 부서진 공룡 화석들과 마치 살아 있는 듯 한 조개나 물고기 화석들은 모두 다 전 지구적인 노아홍수의 심판사건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3:12). 이 땅에 남겨진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의 증거들이 독자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징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성품칼럼 (37)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성품리더십(5)- 기쁨의 리더십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는 기쁨(Joyfulness)을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리더십은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좋은 리더십이란 훌륭한 매너,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인간적인 신념과 선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요, 특히 리더가 갖춘 기쁨의 성품은 탁월한 영향력이 되어 그가 속한 공동체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쁨의 성품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함부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자신 속에 숨겨진 강점을 찾아 개발하여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리더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높은 자존감이 비결입니다. 높은 자존감은 바로 자신감으로 표현되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 안에 기쁨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세상을 향한 당당함으로 드러나게 되요. 자녀를 향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자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둘째, 잘하는 것을 찾아 강점으로 개발해줍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부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격려해주세요. "와, 대단한 걸!"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와 같은 칭찬의 말들을 아낌없이 듣고 자란 아이는 문제를 통해 숨겨진 강점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의 작은 성공은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기억되어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라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아이에게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주는 언어를 들려줍니다. '너 때문에 못살아' '배불러 죽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 대신 '엄마는 널 보면 행복해' '매일 이렇게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기쁨의 언어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넷째, 기쁨의 성품을 유지하는 5-2-5 법칙을 연습하세요. 화를 폭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대인공포증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먼저 화를 조절하고 기쁨의 성품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품을 다하여 기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쁨의 5-2-5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다섯을 셀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2: 마음속으로 돌까지 세며 숨을 참습니다. 5: 다시 다섯을 세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기쁨의 리더는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공 좋은 지도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세상은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b>덴버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유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00(2월) 수요학교: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학교: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사제기도회: 오전 8:00</p>	<p><b>백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예배: 오전 8:30(9월) 주일학교: 오전 10:15(9월) 수요학교: 오전 11:30(9월) 수요학교: 오후 6:30</p>	<p><b>맨햄교회</b>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 예배: 오전 7:00 주일학교: 오전 8:15 수요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7:00 다문화: 오전 10:00 수요학교: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8:00(9월)</p>	<p><b>보스완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전 8:00 수요학교: 오후 8:00 다문화: 오전 11:00 수요학교: 오후 8:00</p>	<p><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00 수요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7:00</p>	<p><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15 수요학교: 오전 8:30 수요학교: 오후 8:00 수요학교: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11:30</p>
<p><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00(2월) 수요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7:00</p>	<p><b>시애틀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15 수요학교: 오후 7:30 수요학교: 오후 8:00(9월) 금요기도회: 오전 8:30</p>	<p><b>시카고에브림교회</b>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예배: 오전 7:00 주일학교: 오전 8:00 수요학교: 오전 11:00 수요학교: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p>	<p><b>알란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4:00 수요학교: 오후 7:30 수요학교: 오후 8:00(9월)</p>	<p><b>앵커리지델리안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7:00 수요학교: 오후 8:00</p>	<p><b>앨파소델리안교회</b>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예배: 오전 8:00(9월)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학교: 오후 7:30</p>	<p><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학교: 오전 12:00 수요학교: 오후 7:30 수요학교: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학교: 오후 8:00</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학교: 오전 11:30(2월) 수요학교: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후 8:30(9월)</p>	<p><b>주역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8:00 수요학교: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8:00(9월)</p>	<p><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8:30 수요학교: 오후 8:00 수요학교: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8:30(9월) 세례예배: 오후 8:00(9월)</p>	<p><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전 8:30 수요학교: 오후 7:00 수요학교: 오후 8:00(9월) 세례예배: 오전 8:30(9월) 세례예배: 오후 8:00(9월)</p>	<p><b>타코마사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학교: 오전 11:30(9월) 수요학교: 오후 8:00(9월)</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영 14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학교: 오전 11:00 수요학교: 오후 7:00 수요학교: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후 8:00(9월)</p>
<p><b>렘파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9:30(2월) 수요학교: 오전 10:50 수요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8:30(9월) 세례기도회: 오후 8:30(9월)</p>	<p><b>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00 수요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7:45 수요학교: 오후 7:45 수요학교: 오후 8:00(9월) 수요학교: 오후 8:00(9월)</p>	<p style="text-align: center;"><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지역</b></p>	<p><b>아가페선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7:00 수요학교: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8:30(9월)</p>	<p><b>에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학교: 오전 7:00 수요학교: 오후 8:00(9월) 세례예배: 오전 8:30(9월)</p>	<p><b>하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준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학교: 오전 7:00 수요학교: 오후 8:00(9월) 세례예배: 오전 8:30(9월)</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학교: 오전 11:30(9월) 수요학교: 오후 7:00 수요학교: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 구원과 박옥수 청소년 캠프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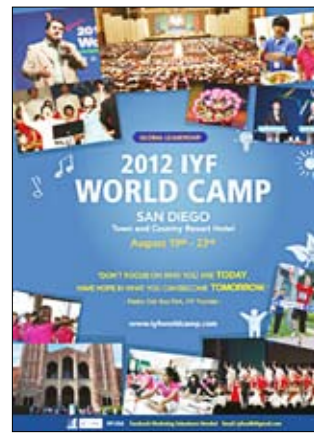
## 각 교회, 가정서 청소년자녀 참여 방지해야

구원과 박옥수 계열의 청소년 캠프인 2012 IYF World Camp in San Diego가 다음 주로 임박한 가운데 각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한인 타운 내에 마켓과 커피전문점 앞에서 캠프홍보를 위한 전단지 뿌리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다. IYF측은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캠프홍보를 위해 타운 내에서는

별문과 원서 가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웨스턴과 올림픽에 위치한 갤러리아 마켓의 푸드코트에서도 손님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인터넷세대들이 자녀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남가주교계는 지난 7월 21일 이만희 신전지집회가 열렸던 구 수정 교회에서 앞에서 반대시위를 한 바 있으나 이번 청소년캠프에는 아직 이렇다 할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캠프는 19일부터 시작된다.

(박준호 기자)



박옥수 구원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IYF WORLD CAMP 브로슈어 표지



굿네이버스 USA 과테말라 아동 초청 공연에서 이아노스 앙상블이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하고 있다

### 굿네이버스USA 과테말라 아동초청 공연 조이시티교회서...결연아동과 어머니 초청

굿네이버스USA 과테말라 아동 초청 공연을 조이시티교회(담임 강신승 목사)에서 12일 오후 5시에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지난 6월 일주일간 과테말라 자원봉사를 직접 다녀온 일반인 지역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아이노스앙상블(단장 최혜규)이 무대에 올라 'You Raise Me Up', '하나님의 은혜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소품곡' 등을 연주했다.

이날 강신승 목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꼭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쁜 일들 중 하나이다. 오늘 공연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가슴속에 귀한 감동과 하나님 이 주시는 귀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아이노스앙상블의 연주회 장소를 제공한 조이시티교회는 과테말라와 말라위 아동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날 과테말라의 마리아와 텔리 두 소녀와 그들의 어머니가 초청돼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 새생명선교교회 설립6주년기념 부흥성회

새생명선교교회(담임 김만수 목사)가 설립 6주년을 맞아 남진선 목사를 초빙, 10일부터 12일까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주제에 대해 감사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금년 집회를 통해 남진선 목사는 '드전과 응전'(행11:19-30), '선한 목자'(요10:1-18),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계 2:18-29)라는 제목으로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12일 오전 11시 김만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설립 감사예배에서 백남규 집사 기도에 이어 단에 오른 남 목사는 요한계시록 3:7-13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 앞에 있는 열린

문'이란 제목으로 전하며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장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립6주년을 맞은 새생명선교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미국사회에 이바지하는 교회',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영혼구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온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다. 새생명선교교회는 그랜데일 지역 1300 E. Colorado St에 소재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 이슬람 세계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선교 전문가)

1. 물인정한 캄보디아 경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여차 구니없는 사건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약 두 달 전 3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교육선교를 잘하는 한국 선교사부부가 18살짜리 고등학생을 교통사고로 잃는 슬픈 일이 있었다. 다른 오토바이가 받아 땅에 넘어지자 뒤를 따라오던 큰 트럭이 그냥 죽이고 뺏고 치고 말았다. 부모들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게 무려 54년의 휴대용 신호를 보냈지만 밤늦도록 소식이 없어 큰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 경찰서를 다 찾았으나 행방을 못 찾았다. 그러나 밤 1시에 어

다만 종교를 빙자하여 선교사를 추방한다.

2. 시크교 사원 총기난사 사고

미국은 불행하게도 계속 총기 난사사건으로 사람을 무차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7월에는 플로리다 오로라에서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 12명의 사람을 죽이고 무려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위스콘신 주의 시크교 사원에서 한 청년이 무차별 사람을 죽이는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6명의 시크교 신자들이 죽고 많은 신도들이 부상을 당했다. 살해자는 경찰의

총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으로 CNN이 보도했다. 중국 신화사 통신은 이 청년은 백인우월주의자로 보도했다. 원인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인도에서 일어난 힌두교와 무슬림의 충돌 장면



방글라데시 상륙을 거부당한 로힝가 무슬림들

시크교는 16세기 인도 분잡주의 나 나크라는 자가 힌두교와

보호자 불명으로 처리하고, 살인 운전자나 회사를 조사하지 않았다. 보혈도 보상도 아무것도 없이 자식만 잃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다. 불교교리의 전생윤회사상 때문인지 모르나 사람 죽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불교교리가 칼링필드 때 200만이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영국의 불교전문가가 주장하였다. 단기간 여행팀이 캄보디아 사람들 순진하다고 말하는 소리 듣는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결코 순진하지 않다.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거나 매일 불행한 주민들이 땅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기사가 날 정도다. 그래서 생명과 정의를 가르치는 기독교가 이 땅에 절대 필요하다. 기독교의 생명 중시와 정의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 (14면으로 계속)



제17회 NAPAD총회에서 실행목사로 취임한 천진석 목사를 이날 모인 참가자들이 축복기도하고 있다

###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라'

#### 8월1-4일 그리스도교회제자사회 NAPAD총회 성료

그리스도교회제자회 제17회 NAPAD 총회가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사54:10)라는 주제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오렌지 시에 위치한 체프만 대학(총장 제임스 도티 박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첫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개회예배를, 둘째 날 저녁 '언약을 영위하라', 셋째 날 저녁 집회는 '문화의 밤'으로 그리고 넷째 날 폐회예배는 '언약을 나누자'라는 주제로 드려졌다.

둘째 날 저녁 필리피노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집회는 한인남성중창단이 특성을, 샌드하 자 목사가 요일4:18-21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이영선 목사(남가주중앙선교단 단장)가 축사했다.

이날 NAPAD의 대표 격인 실행목사로 선출된 천진석 목사의 취임 및 축하하는 시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찬 목사를 위해 축복기도했다. 천진석 목사는 "부족한 제가 임기 6년의 실행목사로 선출됐다. 맡겨진 임기동안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교회제자회 교회, 개

인이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영성을 갖고 진정한 교회공동체 갖는 목적으로 선교활동 활발히 하는 제자회가 되도록 하며, 제자회 소속 아시아 공동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실행목사가 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번 NAPAD 집회는 청소년 집회와 청년집회도 함께 열렸으며 저녁집회는 청소년부터 장년까지 함께 모여 세대와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진행됐다.

한편 셋째 날 저녁집회에는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고 이아나아시 코이아니아에서 열린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World Convention) 제18차 대회에서 세계대회장으로 선임된 이강평 목사(한국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중경회장)가 참석해 NAPAD 집회를 빛내주었다.

NAPAD는 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로 그리스도교회제자회 소속 아시아 총회이며 2년마다 워크샵 등이 포함된 집회로 열리고 있다. (박준호 기자)



남진선 목사가 새생명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b>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b>		<b>기쁨과 영광교회</b> 담임목사: 권희수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1: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1-42 128th St, Flushing, NY 11355 E-mail: joyandgloryny.com	<b>낙원장로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4시: 오전 8:45 주일24시: 오전 11:00 목요일: 오후 7:00 수요일: 오후 9:30 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45 Tel: (718) 259-7788, (718) 259-7771 41-42 128th St, Flushing, NY 11355 E-mail: labyonchurch.org			
<b>뉴욕셋째마녀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1: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1-42 128th St, Flushing, NY 11355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0-52 128th St, Flushing, NY 11354 www.nycny.org	<b>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택원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영양)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영양)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2 Beacon Hill Blvd, Fort Washington, NY 1150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4시: 오전 10:3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8: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0-54 128 St, Flushing, NY 11358 www.nycny.org	<b>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4시: 오전 7:30 주일24시: 오전 9:00 주일34시: 오전 11:30 주일44시: 오전 1: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0-54 128 St, Flushing, NY 11358 www.nycny.org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9:30 주일34시: 오전 11:30 주일44시: 오전 1: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0-54 128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주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1: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1-42 128th St, Flushing, NY 11355
<b>뉴욕효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15 4부 예배: 오전 12:30 5부 예배: 오후 1:30 6부 예배: 오후 3:00 7부 예배: 오후 7:30 8부 예배: 오후 8:30 9부 예배: 오후 9:3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0-52 128th St, Flushing, NY 11355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0-52 128th St, Flushing, NY 11354 www.nycny.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철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37-47 124 St, Flushing, NY 11358	<b>풍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혁명 주일14시: 오전 11:30 주일24시: 오전 11:30 주일34시: 오후 8:30 주일44시: 오후 10: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360 Edison Ave, Roseton, NY 11385	<b>메디니교회</b> 담임목사: 장동관 주일14시: 오전 7:30 주일24시: 오전 9:30 주일34시: 오전 11:30 주일44시: 오전 1: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0-54 128 St, Flushing, NY 11358	<b>어린양교회</b>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30 주일34시: 오전 1:30 주일44시: 오전 3: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0-54 128 St, Flushing, NY 11358	<b>유니온연합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재철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0:45 4부 예배: 오후 2:30 5부 예배: 오후 8:00 6부 예배: 오후 9:00 7부 예배: 오후 9:3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88 St. George Ave, Roseton, NY 11385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곤 주일14시: 오후 12:30 목요일: 오후 6:3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70 Phoenicia Rd, Manhasset, NY 11030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b>윈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142-17 Francis Ave, Flushing, NY 11355 www.zpcny.org	<b>윈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88-00 22nd Ave, Bayside, NY 11360 www.zpcny.org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재익 주일14시: 오전 11:30 주일24시: 오전 8:30 주일34시: 오전 11:30 주일44시: 오전 1: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718) 259-7883, (718) 259-7771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hmcny.com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 985-0009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 985-0009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b>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남미지역</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202) 746-1488, Fax: (202) 746-1488 701 American Plaza, 201 Chambers St, Suite 2000, Washington, DC 20004-29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종원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011) 55-11-3279-8223, (011) 55-11-3279-5261 R. Linsde Alves W Linsde Alves CEP 01506-010	<b>브라질 새사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011) 55-11-3279-8223, (011) 55-11-3279-5261 RUA SANTA CRUZ, 250-PAIS-BAD, PAULO-20-02005	<b>아르헨티나 제임교회</b> 담임목사: 최병원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전 8:30 주일34시: 오전 11:30 주일44시: 오전 1:3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54) 011-437-1758 AV. CALABAZO 1352, CAP.FED., B.R. A.R.,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7:00 주일44시: 오후 9: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40 금요일: 오후 8:30 토요일: 오후 9:30(영양) Tel & Fax: (56) 2-2661-7226, (56) 2-2661-0359 Santiago Curro - 7 Calle 226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원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주일44시: 오후 8:00 수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후 7: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9:00 Tel: (596) 627-574-886 E-mail: hmcparaguay@net.com Curveton, MO, 1201, Anacleto-PARAGUAY	



# 동부교계 게시판



## KAPC 뉴욕노회 제 71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 제 71회 정기노회가 9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73) 470-8407

## 성지순례 후원 골프대회

뉴욕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목회자 성지순례 후원을 위한 골프대회를 20일(월) 오후 1시 크리어뷰 골프코스에서 개최한다. 회비는 120달러이며 점심, 저녁 식사가 포함된다. 출신원에게는 캐디락 승용차 등 상품이 수여된다.

▲문의: (646)270-903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2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 △대학원: 목회학, 기독교교육, 선교학 △여교역학과 등이 있으며 입학원서, 목사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서접수마감은 9월 7일(금) 오후 6시이며 8일 입학시험이 있다. 한편 영성훈련은 9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매 저녁 8시에 있게 된다.

▲문의: (718)463-7193, (646)717-2733

##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버지니아장로교회(담임 민철기 목사)에서 부목사를 청빙한다. 주요 사역은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이며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영 이중언어가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가족 본인 사진 포함), 신앙간증문,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 동영상 CD 2개를 우편(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이나 이메일(wonpaik@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서류마감은 9월 30일.

▲문의: (703)922-6064(교회), 585-6355(백원길 장로)

## 장학생 모집

제 11회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춘원 목사)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미국 거주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며 현재 신학교(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재학생,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 대학(원) 재학생으로 대학원 8학점 이상 학사과정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 B+이상인 자. 12명에게 각 1500달러씩 지급한다. 신청서(www.NLChicago.org)에서 다운)와 신앙간증문 및 비전문, 담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마감은 10월 19일이며 발표는 12월 3일 본 교회 웹페이지에 공개한다.

▲문의: (847)359-5200 이메일 scholarship@nlchicago.org

## 뉴욕리폼스신학교 학생모집

뉴욕리폼스신학교(NYRBS, 학장 유상열 박사)가 2012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학사: 신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 △석사: 목회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 특히 이번 학기부터 신설되는 교회음악과(32학점)는 각종 악기와 음악이론, 실기, 음악신학 등을 강의한다. 본 과정은 찬양 및 문화선교 사역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필요한 서류는 학교 웹페이지(www.nyrb.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류마감일은 8월 말이며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은 9월 3일(월) 오후 6시30분, 논문작성법 특강은 6일(목) 오전 10시-정오 본교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718)961-2171, (917)862-0523

추방유예조치 및 노동카드발급제도 관련 무료세미나 추방유예조치 및 노동카드발급제도에 관한 무료 세미나가 오는 19일(주) 오후 4시 뉴욕천성교회(담임 이승원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최영수 변호사.

▲문의: (718)357-4064, (646)584-0111

# 등록마감 9월 14일, 24일 후보발표

## 뉴욕교협 선관위 2012총회 선거일정 확정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가 오는 10월 22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7일 제39회기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뉴욕교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선거관리위원장 김원기 목사와 선관위원 이희선 목사, 현영갑 목사, 이병홍 목사, 송병기 목사, 김연규 목사가 참석했으며 문석호 목사, 이주익 장로, 이철선 장로는 위임하고 최승렬 목사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임시 결정했다. △9월 1일(토) 입후보자 모집공고(인터넷 매체와 신문 공고) △14일(

일) 오후 5시 선거등록 마감 △24일(월) 오전 10시30분 서류심사 및 후보 확정 △10월 9일(화) 후보자 언론토론회(뉴욕한국인그레이트네교회) △10월 22일(월) 오전 10시 정기총회. 또한 총대(목사 1인, 평신도대표 1인)의 사전등록은 10월 10일(수) 오후 5시까지 정하고, 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대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총대등록 시 회비를 완납한 총대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27일(월) 임시총회에서도 지난 36, 37회기 회비를 완납한 총대에게만 투표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 파송예배

##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로...기도로 출발

### 웨슬리부흥전도단, 도미니카단기선교팀 파송예배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단장 양민석 목사)의 도미니카공화국 단기선교팀 파송예배가 지난 10일 저녁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선교팀원들은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다. 그레이트네교회, 스테튼아일랜드 한인교회(담임 정광원 목사), 뉴욕드림교회(담임 김남석 목사) 총 3개 교회에서 24명의 단기선교사가 파송된다. 팀은 13일 도미니카로 출발 18일까지 현지에서 태권도, 연극, 워십댄스 등의 퍼포먼스를 펼칠 한편 현지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전하게 된다.

이날 파송예배는 정광원 목사의 인도로 김한규 전도사 기도, 김남석 목사 말씀, 교회별 발표회, 양민석 목사 파송인수, 조영철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석 목사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행11:19-25)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 위에

단기선교를 오셔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했다"며 "여러분도 짧은 시간이지만 도미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의 힘으로는 큰 힘을 낼 수 없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송인수는 양민석 목사를 비롯한 웨슬리부흥전도단 목회자들이 파송되는 23명의 학생들에게 일일이 안수기도하며 선교지에서 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했다.

또 이날 각 교회는 현지에서 펼칠 퍼포먼스를 성도들 앞에 선보이기도 했다. 그레이트네교회는 세상을 쫓다가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무언극을 선보였고, 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는 워십댄스를, 뉴욕드림교회는 태권도 퍼포먼스와 격파 시범을 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 패밀리터치 청소년 리더십 캠프 마쳐

###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배워

패밀리터치(대표 정성숙 박사)가 주최한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수양관에서 지난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끝났다. 총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본 캠프에서는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7가지 습관'을 청소년 시절부터 배워서 평생을 성공적인 리더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공적인 삶의 7가지 습관은 '주도적이 되라'(Be proactive),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라'(Begin with the end in mind), '소중한 것부터

먼저하라'(Put first thing first), '승승을 추구하라'(Think win-win), '먼저 이해한 다음 이해 시켜라'(Seek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시너지를 추구하라'(Synergize), '끊임없이 쇠신하라'(Sharpen the saw)이다.

5명의 강사들과 이미 이 과정을 거친 대학생 멘토들, 피어 리더들은 이 습관을 배워야 할 필요성과 이 습관이 주는 유익, 그리고 어떻게 그 습관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베트남, 중국, 백두산서 통일기도회

###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선교지 방문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가 9월 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과 중국 선교지를 방문한다. 동 지회는 지난 10일 임원회를 열고 각 선교 방문단 일정 및 명단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방문지역 및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 보트피플을 위한 보트처치와 교회, 그리고 신학교 및 선교지를 위해: 사무총장 김연규목사와 이사 이희선 목사 △중국 현지인교회와 선교지 및 신학교, 그리고 북한 고아원지원을 위한 땀공장을 방문하고 백두산에서 통일기도회를 열기 위해: 회장 이병홍 목사와 이사장 장석진 목사, 사무총장 김연규 목사와 회계 김남석 목사 및 이사 6명 등 총 10명.

또 동 지회는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한국 광주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를 초청, 아이티선교를 위한 연합집회를 각 지역(스테튼아일랜드, 웨체스터, 롱아일랜드, 우드사이드, 플러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는 정기적으로 캄보디아 농장사역과 고아원지원을 위한 무료진료를 후원하고 있으며 러시아 신학교와 교회, 그리고 농장사역과 아이티의 고아원과 학교, 교회건축을 후원하고 한 가정 살리기 염소보내기 운동 등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동 지회 후원을 원하면 사무총장 김연규 목사(917-558-7435)에게 연락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청소년 리더십 캠프 참석학생들과 멘토 리더들이 기념촬영했다.

**JoyLA.com**

Frelle 기존의 어떤 샴푸기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 샴푸기 혁명!!

프렐 마이크로버블 샴푸기

아직도 일반 물로 샴푸 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이 샴푸시 만족할까요?  
세균의 침투수를 계속 낮게 하시겠습니까?

드라마 로얄패밀리에 소개  
선물적 인기를 얻은 제품

마이크로버블이란?  
마이크로버블이 0.05mm 이하의 크기에 포를 밀어냅니다. 마이크로 버블 수는 피부결을 개선해 도광을 주고 피부미용, 세로로세에 효과가 있으며 우수한 살균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염색은 탈색 및 윤색효과로 색안정효과도 도움을 줍니다.

물로 느껴지는 마이크로 버블효과

1. 나이드신부, 피부각질층 완화(20일후)
2. 나이드신부, 피부 결의 미세 - 밤, 니코틴, 노안성 결(즉시)
3. 미끈미끈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즉시)
4. 얼굴의 기쁨과 활력(즉시)
5. 화장이 잘 지워지는 피부(즉시)
6. 미드미드 및 기쁨 피부결 개선(2-3주후)
7. 여성 피부사해 및 비염증과 최고(즉시)
8. 탈색, 염 - 염기 강탈, 스킨, 아토피, 과민성 피부염 및 습진(99.9% 즉시)
9. 저나노기술의 미세 제거 및 피부의 열의 작용(즉시)

아토피 피부염도 증상 및 가려움 제거  
여드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됨

여드름 피부노폐물 제거 및 가려움 개선,  
피부보습도 향상으로 인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됨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 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스트롱 원어코드

# NEW 성구사전

개역개정판

360,000절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New Bible Strong's Concordance

로고스 STRONG CORD

## 히브리어·헬라이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개역개정판

로고스 NEW 성경사전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리어를 정기간,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어려운 단어를 구별하며 대표어 명기함, 단어를 스트롱코드와 함께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현재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 “우리민족위해 큰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 OC기독교전도회연 주관 광복절 67주년기념예배



광복절 67주년 기념 콘서트가 은혜한교회에서 열렸다. (사진 좌측위) OC지역 광복절 연합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엄영민 목사, (사진 우측위) 간증하고 있는 이성미 집사, (사진 아래) 가수 황보, 개그우먼 송은이 자매, 박미선 권사가 간증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와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신중은 목사), 그리고 LA 동부교회협의회(회장 김민섭 목사)가 공동주최하고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가 주관한 광복 67주년 기념예배가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11

일 저녁 7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엄영민 목사가 시편 126편 1,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엄 목사는 “압박과 설움에 빠져 있는 우리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축복해주셨다.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살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주셨으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 새로운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을 67주년 맞이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위해 큰일을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큰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큰일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축복한다”고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신중은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기념예배에 이어 열린 ‘아름다운 이야기와 노래들’ 콘서트는 한국의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와 가수 황보가 무대에 올라 재치 있는 입담과 간증 그리고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총신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됐으며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갔다.

총신교회 권사인 박미선 씨는 “어렸을 때 전도관이던 이단집단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친구 따라 재미로 교회에 나간 것과 미션스쿨에 다니는 게기가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다. 이성미 선배가 결혼을 말했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됐고 그것은 마치 선교지에 파송돼 생활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시부모님 모두 예수를 잘 믿고 충실히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남편 이봉원 씨는 교회를 나가지만 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믿음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이 씨는 “불교집안에서 보살의 딸로 자랐다. 어린 시절 친구 잘 만나 믿음생활을 했지만 집안의 반대 때문에 부딪혀 몰래 다녀야 했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 모습을 봤던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송씨는 “어머니를 위해 새벽기도를 꾸준히 하던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 데리고 가달라고 하셨다. 요즘 어머니는 보살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전도할 정도로 신앙인이 되셨다”고 말했다.

황보 씨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신앙의 교만이 들어있었다. 사춘기가 오면서 방황했지만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그들의 기도덕분에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크리스천으로 버텨뚝이 되고 분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미 집사는 “간증거리가 많다는 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지만 그만큼 시련도 많다는 것”이라며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뼈뿔어진 시절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았기에 개그우먼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기쁨이 없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40일 새벽기도 후 만나게 된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였다”고 말했다. 이 집사는 캐나다 이민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됐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말했다.

이 콘서트는 12일 오후 2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그리고 저녁 7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복음장로교회 설립30주년 기념음악회

복음장로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시146:1)라는 주제로 5일(주) 저녁 7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김상덕 목사는 “30년 전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셨다. 겉으로 보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성전인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 모시고 거룩하게 변화됐다. 우리 성도들의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건축됐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를 양육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본 교회 이우상 장로의 기도로서

작된 이날 음악회는 오르간연주자 박인숙이 오르간연주를, 목관5중주팀이 목관연주를 선보였으며 본 교회 연합성가대가 ‘주님’, ‘여호와께는 위대하다’, ‘거룩하시다’, ‘축복’, ‘할렐루야’ 등 주옥같은 곡들을 불러 이날 교회를 가득 메운 청중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

또한 ‘주님께서 세운교회’를 앵콜곡으로 불러 교회설립 30주년을 더욱 뜻 깊게 했다. 이날 남성중창과 글로리아 여성중창 그리고 바리톤 장진영과 테너 김일두 등이 찬조 출연해 복음장로교회 30주년 기념음악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 비전의 밤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대표 김영환 목사) 비전의 밤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22일(수)과 23일(목) 양일간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최혁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비전의 밤은 제주영남대학 설립자이며 국제YWAM 동북아시아 대표인 홍성건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윤주형 목사와 찬양팀이 찬양인도를 하며 지명현 목사(22일)와 구현화 사모(23일)가 특별순서를 맡게 된다.

▲문의: (213)435-0396/정상협 간사

### 제8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8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20(월) 오후 2시부터 22일(수) 오후 3시까지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에서 개최된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특별히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목회자(목사, 선교사, 전도사)들에게는 오렌지카운티 목사회에서 참가비 50%를 후원하게 된다.

▲문의: 춘비위원장 김영찬 목사 pyckim@gmail.com, (562)833-5520, 박세현 목사 (323)404-3147

### 박종호 성가사 찬양간증집회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박종호 성가사 찬양간증집회를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주) 오후 1시45분에 갖는다.

▲문의: (661)618-9392

### 2012 밀알의 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이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금 마련을 위한 ‘2012 밀알의 밤’을 행복전도사 낙부이치체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정은 △24일(금) 오후 7시30분 ANC 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25일(토) 오후 7시 남가주사망의교회 △26일(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문의: (714)522-4599

###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어바인 한믿음교회(담임 최상준 목사)는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를 ‘살롱’이라는 주제로 19일(주) 오후5시에 개최한다.

▲문의: (949)769-9628

### 가정을세우는사람들 자녀양육세미나

가정을세우는사람들(FBM)이 주최하는 자녀양육세미나가 18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커넬대학교(3321 w Lincoln Ave, Anaheim)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커넬대 상담대학원장 금병달 박사과 금정진 사모, 그리고 10여년 간 청소년사역을 담당해 온 금창성 간사가 나서 ‘부모/자녀의 필요’, ‘자녀의 정체성’, ‘자녀와 좋은 관계 만들기’, ‘자녀후계와 보살’ 등을 강의한다.

▲문의: (714)287-2458



복음장로교회 창립 제 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본교회 연합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하고 있다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인터넷이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 한국방송**을 보세요

Familyiptvusa.com

끊임없는 고품질 패밀리 IPTV

영화채널 포함 월/\$29.99로 다양한 한국방송을 당일 또는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TV로 시청하세요!

패밀리 IPTV만의 또 하나의 장점 선택보기 (VOD)기능

TV 리모콘 하나로 방송 3사외 드라마, 예능프로, 8시뉴스/시사/다큐 및 한국화신영화, 어린이 영화, 기독교 설교 등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마저 DVD나 비디오를 빌려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EBS / SBS / KBS 1 / KBS 2 / MBC / YTN / SBS ESPN / SBS GOLF

전화: 646-220-8324 이메일: familyiptvusa@yahoo.com



# 교회 예배당, 이단단체에 매각사례 증가

## 무리한 증축 부채압력 탓...기성교회 경각심 촉구

[CBS]최근 2, 3년 사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시도하다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매각되는 교회 건물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 건물들이 이단단체들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교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1972년 창립해 39년의 역사를 가진 충남 서산의 한 교회는 서산지역 성서화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 지역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지만 2007년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은행으로부터 50여 억 원을 대출받은 뒤 재정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 교회는 새성전 건축비를 위해 기존에 20년 넘게 써 왔던 건물을 이단으로 규정된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측에 20억원에 매각했다.

인천시 신흥동의 모 감리교회. 이 교회 역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전

하면서 2009년 6월 안상홍증인회측에 교회 건물을 넘겼다. 매매금액은 103억원. 용인시 보정동의 한 침례교회, 이 교회 역시 교회 건축 과정에서 재정난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안상홍증인회에 교회 건물을 넘기고 말았다.

성남 분당의 이 교회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가 1996년 지교회로 건축한 교회다.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지만, 이 교회 건물 역시 이단으로 규정된 박옥수 원원파측에 지난 2008년 60억원에 매각됐다.

이처럼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짓다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교회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해마다 백 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 건물과 부지들이 이단 단체에 매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이단들이 교회 건물을 사들

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부채압박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없이 매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한국교회의 이 같은 안이한 태도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단들은 기성교회 건물을 매입하려는 걸까?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들이 정통교회 건물을 사들이면서 자신들도 정통교회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들어 경매에 매물로 나온 교회 건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안상홍증인회의 경우, 하나님 의교회란 이름을 쓰기 때문에 기존 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일반 교회로 착각하기 쉽다.

최병규 목사(예장고신총회 유사 기독교 상담소장)는 "안상홍증인회가 하나님의교회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모를 경우, 정통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노려서 교

회 건물을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교회들의 선교 거점지역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노려 일반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형택 목사(예장합신총회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장)는 "따라서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는 욕심부리지 말고 교회 형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무리하게 교회를 짓다가 경매로 넘어가 이단들이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건물은 특히 예배드리는 용도 외에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아 종교기관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단들이 경매에 참여해 기존교회 건물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단들의 치밀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성교회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고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단 단체에 교회 건물이 넘어가는 것은 기존 교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 '기도한국 2012' 26일 서울 본 대회

## 예장합동, 지역대회 폐막...민족복음화·세계선교 승화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은 12일 '기도한국 2012'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구 서문교회에서 기도한국 대구대회를 개최했다.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부산과 전주 전안 광주 제주 대전 등에서 개최된 지역별 기도한국 대회는 대구 대회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대구지역 7개 노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참석한 기도한국 대구대회에서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왜 기도한국인가'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 찬양 대주 대전 등에서 개최된 지역별 기도한국 대회는 대구 대회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도는 늘 교회와 민족의 어둠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성화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기도한국은 이제 교단의 대표적 기도운동이자 자랑스런 영적 브랜드가 됐다"면서 "오는 26일 교파를 초월해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셔도 된다. 한국교회의 신학이 건전하며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도는 민족, 대구, 교회의 소망이다'는 구호를 제창했

으며,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대구복음화와 총신대와 지방신학교, 대구에서 열리는 97회 교단 총회를 위해서도 간구했다. 예장 합동은 지난 달부터 대전 새로남교회, 전주 북문교회, 광주 겨자씨교회, 제주 동신교회 등에서 지역별 대회를 개최해왔다. 지역별 대회를 통해 결집된 전국 성도들의 기도열기를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에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 한기총-한교연 합의 하루만에 깨져

## 한기총 흥회장 등 이단·사이비 조사 강행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은 지난 7일 열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등 8명에 대한 이단·사이비 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모적인 이단 논쟁을 중지하겠다는 한기총과 한교연 대표회장의 합의서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합의가 깨진 모양새다.

이에 대해 청취한 뒤 "한국교회를 평화롭게 하려는 대표회장의 화해정신은 존중하나 이번 사안은 진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단·사이비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합의서에서 한교연은 홍재철 목사의 이단 연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내 한기총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다. 내부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표회장이 한

약속을 실무 위원회에서 어기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합의서가 공개될 때부터 어긋남 조짐을 보였다. 합의서는 지난 4일 양 기관 대표회장이 서명한 뒤 6일 한기총에서만 공개했다. 당시 한교연은 서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기총은 바른신앙수호위원회 결정에 대해 "합의와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총 관계자는 "대표회장이 서명했다면 단체를 대표해 합의했다는 것인데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으로 취급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한기총은 사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중재한 기독교시문운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는 "판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도력의 문제"라며 "직접 서명한 대표회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한기구 간 소모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던 미래목회포럼도 "사태의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연합기구들의 빛나간 이단정죄가 도를 넘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한복총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향한 제언' 개최

한국기독교복음단체인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이하 한복총)은 오는 9월 6일 오후 7시부터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향한 제언'을 개최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복총은 "한국교회를 평화롭게 하려는 대표회장의 화해정신은 존중하나 이번 사안은 진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단·사이비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합의서에서 한교연은 홍재철 목사의 이단 연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내 한기총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다. 내부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표회장이 한

#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 명문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승인을 불부하고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개최됐으며, 보칙 등을 추가로 수정했다.

지난 2월 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임기를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문화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관 앞부분에 임기 변경을 명시하면서 뒷부분 보칙은 고치지 않아 현 대표회장의 임기가 불명명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기총의 설명

# 한겨레 '기독교 공격' 도 넘었다

## '학교는 마치 종교감옥' ...악의적 과장 보도 잇따라

〈미션라이프〉한겨레신문의 '안티 기독교' 보도가 도를 넘어섰다. 한겨레는 악의적인 과장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며 마치 기독교 전체가 문제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한겨레는 9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수업 대신에 할렐루야, 학교는 마치 종교감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기독교 사립 일반고인 서울 명지고가 지난 7월 18-20일 학교 체육관에서 신앙부흥회를 열어 학생을 참석케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학생들은 매일 아침 8시 교실에서 '큐티(QT)'를 갖는데 이 시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가기도, 떠들지도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학급별로 걷은 돈을 학생 동의를 없이 헌금으로 내고, 예배수업을 하면서 명목상으로는 대체과목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명지고는 한겨레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명지고 김중화 교목은 "학생들에게 예배수업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대체과목도 개설했다"면서 "수강희망 학생 수가 적어 대체과목을 폐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을 국제기구단체인 월드비전에 기부했는데 이를 헌금으로 냈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부흥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었고 설교 내용도 '신앙 가운데 성장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였다는 게 명지고의 설명이다.

김 교목은 "학생들은 고교선택제를 통해 미션스쿨인 우리 학교를 선택했고 입학할 때 기독교 설립 정신에 입각한 학사 일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도 냈다"면서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학교 전체의 문제로 비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페이스북 등에 "종교감옥 이라니 장난하나, 3년 다니면서

종교감옥인 것 느껴본 적 없다" "무슨 속셈으로 저런 글을 썼는지" "마음이 아프고 정말 화가 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교계에서는 한겨레의 보도를 균형 잃은 악의적 보도로 규정했다. 한국교회연회회 심판심 목사는 "한겨레는 유독 기독교에 대해 비관적인 신문"이라며 "이번 기사도 일부 학생의 의견을 문제 삼아 기독교의 흠을 잡기 위한 편파 보도"라고 꼬집었다. 또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신앙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종교사학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도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예배를 못하게 한다면 누가 종교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겨레는 교회공격을 일삼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을 비판하는 성명 광고를 논조와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며 "한겨레가 특정종교의 대변자가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청이 소망교회와 밀알재단 등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보도하며, '소망교회 카페·빵집 돈벌고도 세금 안내 달미' '식당·꽃 가게 돈벌이 교회마트는 탈세 무법지대' 등의 악의적인 제목을 달아 교회를 범죄집단처럼 묘사했다.

한겨레는 종자연의 활동과 논리도 적극 보도해왔다. 2006년부터 20건 이상의 기사로 종자연의 왜곡된 종교차별 논리를 소개하며 기독교를 부정적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2008년 8월에는 종자연 박광서 대표의 '공공영역 종교중립 시급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불교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종교차별 논리를 그대로 전달했다. 2010년 4월에는 "대광고 강의식 소송을 도맡다시피 해 '종교강요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며 종자연을 치켜세웠다.

이다. 기존 보칙에는 '정관 발표 이전의 인사 담당자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기까지 정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어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가 1년이 되거나 새로 2년을 더해 3년이 될 수도 있었던 것. 홍 대표회장은 "문화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추가로 수정했다"며 "내 임기는 지난 2월 취임 때부터 2년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정관 개정안이 문화부로부터 무난히 승인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총과 한교연 대표회장이 이단 논쟁 중지를 합의했음에도 지난 7일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가 홍재철 대표회장에 대한 이단 여부 조사를 강행기로 한 것에 관한 맞대응이다. 질서확립위는 "한기총과 예장합동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최삼경씨가 최근 한교연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바른신앙수호위원회로 거론됐다는 것은 한교연이 이단과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리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피나, 각종행사  
아라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aq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8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83.8181 Email. laquesthouse@live.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기독교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스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뚫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 선교지 편지

## 파라과이

"도전, 감동 그리고 열매"

8월 3일(금), 2006년에 시작한 아라바니노스가 최초로 지방 도시 까아구아수에서 열리는 뜻 깊은 날이었다. 산들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에 감격하며 모든 스태프들은 바람에 펄럭이는 노란 만국기와 알록달록한 색깔의 풍선으로 장식한 집회 장소에서 앞으로 오게 될 어린이들을 기다리며 흥분되어 있었다. 집회 시간 30분 전,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사람들이 꽉 차 이동이 힘들 만큼 수많은 어린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어린이들, 학교를 마치고 집회 장소로 달려 온 어린이들, 교회 친구들과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어린이들, 까아구아수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아라바니노스 소식을 듣고 온 어린이들의 눈망울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까아구아수 도시가 생긴지 167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라바니노스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1만 2천여 명의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집회 장소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1,500명은 밖에서 기다려야하기도 했다. 코디네이터 미겔 고메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지만, 까아구아수 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찬 적은 5년 전에 있었던 국제축구협회(FIFA)가 주최하는 실내축구경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촉촉이 맺혀 있었다. 집회 장소에 모인 수많은 어린이들을 보며 아라바니노스가 까아구아수 도시에 주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아라바니노스에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한 어린이가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다. 이번에는 5살 때부터 생명의샘교회 주일학교에서 성장한 제세니아(11세)가 자신의 삶을 나누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선교사가 찾아와서 주일학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이나 예쁜 옷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특별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최고의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손을 들어 주세요!"라는 제세니아의 질문에 어린이들은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번쩍 손을 들고 영접기도를 하였다. 어린 제세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이다. 아라바니노스 집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다. 지속되는 사역과 집회 전달에 있었던 카퍼레이드 이후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까아과수 팀, 랍바레 팀과 파라과이 청년 선교사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새벽 3시까지 집회가 열릴 까아과수 체육관 무대 및 풍선 데코레이션을 하는 투혼을 보였다. 집회에 참석 할 어린이들을 마음에 그리며 체육관 곳곳을 꾸미는 그들의 헌신된 모습은 그 어떤 데코레이션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집회 전에 열었던 25차례의 예비 아라바니노스 집회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사역 및 카퍼레이드가 아라바니노스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까아구아수 시장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방송 TV 및 라디오에서 홍보를 도와주었다. 또한 집회 당일에는 까아구아수 시장의, 교



까아구아수 기도하는 어린이



루피노 그레이 목사, 단 알베르도 토바띠 시장, 양창근 선교사



토바띠 아라바니노스 집회 모습

육감, 판사 및 김광진 한인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라바니노스를 준비하였기에 더 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다. 까아구아수에서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8월 4일에 새벽 3시에 우리는 또바띠로 향하였다. 인구 9천 명이 사는 또바띠에서 열린 아라바니노스는 3,000명이 참석하였다. 그들을 보며 코디네이터로 섬긴 루피노 그레이 목사와 단 알베르도 토바띠 시장의 섬김의 열매를 볼 수 있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로 아라바니노스 어린이 헌장을 발표할 때는 참석할 모든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귀를 집중하며 마음에 새기듯이 경청하였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체험하며 자라야 한다는 현장 정신이 또바띠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마음에 새겨져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또바띠 집회에서 간증을 나눈 밀라그로 사라떼(Milagro Zarate, 11살)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 의사들이 8살까지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완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바래요"라고 말하였다. 밀라그로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기적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의 뜻처럼 밀라그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기적을 맛본 것이다.

지방도시에서 열린 아라바니노스 소식을 듣고 많은 현지인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더불어 아라바니노스 집회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라바니노스 비전이 파라과이 각 지역에 전해지며,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많은 교회와 지방 정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러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후방에서 파라과이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많은 분들과 뉴스레터를 보시면서 아라바니노스를 성원해 주신 분들, 또한 파라과이에 직접 방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섬겨주신 단기선교 팀들과 젊은 청년 중반기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라바니노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한 어린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까아구아수와 또바띠의 어린 영혼들과 시민들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파라과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앞으로 파라과이 곳곳에서 아라바니노스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확산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달려온 버스 베르데(Verde)

7월 31일 까아구아수 도시에 도착했을 때 파라과이 전국을 다니며 그동안 수많은 사역에 쓰여졌던 1988년형 선교 버스 베르데가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자동차 정비사가 함께 다니며 버스를 사용했지만, 결국 버스 베르데는 엔진이 수명이 끝나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선교 버스를 주님께서 허락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양창근 선교사 드림  
▲이메일: ckyang58@hanmail.net



까아구아수 집회 모습

## 선교대국 한국은 지금...

[미션라이프]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128년 전인 1884년,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이후 28년 만인 1912년 중국 산둥 지역에 선교사 파송을 결의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선교 행진이었다. 이후에도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는 지속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지난해 169개국에 2만3331명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해외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한 것이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교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선교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다음세대인 청년층의 선교지원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 장·단기 선교사 지원을 감소가 그 단적인 예다. 대표적인 청년·대학생 선교 동원 대회인 선교한국대회는 2000년 이후 참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격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 참가자는 2000년 6066명에 달했으나 올해 3390명으로 절반가량인 2676명(44.1%)이 줄었다. 참가 인원이 준 만큼 대회의 목적인 선교사 동원 인원도 감소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3000명대를 유지하던 선교지원자 수가 2010년 2408명, 올해 2141명으로 급감했다.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사 해외파송 2위"란 성적이 만족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작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추세가 심화되면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오지에서 선교비전을 실천해 온 50~60대 노선교사들을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카에 관심이 있어 박람회에서 한국 불어권선교회 부스를 찾았는데 현지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를 추천해줬다"며 "막연히 장기선교사를 생각했지만 어느 나라로 갈지 정하지 못했는데 박람회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선교 지원자를 선교사로서 아닌 잠재적 선교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선교사로 헌신하기 보단 전문성을 기른 다음 선교현장에 파송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한국에서 장기선교사로 지원한 신원종(25·여)씨는 "원래 2년만 선교에 헌신하자고 생각했는데 '삶이 선교'란 설교를 듣고 장기선교사로 마음을 돌렸다"며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장기선교를 준비해 부르시면 언제든지 선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근거는 명확하다. 대위임령(The Great Commandment)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이 대표적인 예다. 성경 자체가 선교의 의

## 젊은 손이 없다... 선교사 청년 지원자 갈수록 감소

○..해외선교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저하는 선교사의 연령층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원장 문상철)이 작성한 '2012년 한국 선교현황-감소와 성숙(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파송 선교사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율이 각각 6%와 26.9%로 40대(42.7%), 50대(19.4%)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문 원장은 "과소 선교사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한국교회 성장 정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청년층의 선교사 지원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며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 선교현장에서 언어학습이나 현지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나님의 선교'의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선교는 성경 일부에서만 언급되는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선교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교 전문가들은 청년 선교 비전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교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직한(청년목회자연합대표) 선교사는 "청년·대학생들의 선교 열기가 식는 것은 목회자들이 이를 활성화할 의지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회와 선교가 통합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히 청년 선교 전임 목회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신학대 박영환(선교학) 교수는 "청년들의 선교 열정에 비해 한국교계의 선교열매가 적은 것은 파벌로 나눠 선교운동을 펴기 때문"이라며 "각 교회·교단·선교단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세계선교와 청년선교가 함께 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청년층 선교지원자 감소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에 비해 절대적인 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인 선교지원자는 그다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교한국 이대행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이번 대회 선교지원자 2141명을 살펴보니 '가는 선교사'가 1500여명으로 '보내는 선교사'보다 3배 정도 많았다"며 "이는 한국교회 안에 다수는 아니지만 선교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꽤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 선교한국 대회에 참석한 청년들 중에는 구체적인 선교 정보를 얻으려 온 경우가 많았다. 강하은(19·여)씨는 "아

입(BO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명쾌한성경해석패러다임!**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 및 등장 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바레복음의 길을 개역해석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인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http://www.israela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학파(바레)의 강의를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작상향, 성전의 제사의식들까지도 풍부한 원문 토대로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다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에서 다루는 무다 문화적 배경 209면 / 9,000원

유대인 의식집중의 278면 / 10,000원

**장재일 목사**

- 순신대학교 총장
- 예루살렘대학 정지리역사학박사
- 원성지대학(D.D) 과정
- 연세대학교 회화학박사
- 연합국이스라엘연구소 연구위원
- 예리사엘대학 아카데미 대표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2** 6. 20. - 24. COEX A/B홀 www.sibf.or.kr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 해피 라이프 (15)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 노년의 새로운 삶 아여모로 시작하다

교직생활에서 또 두 아들의 엄마생활에서 은퇴한 뒤, 남편과 워싱턴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집이라 청소도 쉽고 아파트니 마당을 관리할 일도 없어 참 편해졌다. 더구나 남편은 소리 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혼자서 이메일도 잘 주고 받는다. 옆에서 일일이 물어줘야 할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이곳에는 장애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해주는 Metro Access 라는 제도가 있어 미리 예약을 하면 편도 6-7달러에 이용할 수 있어 무척 편리했다. 남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운전해야만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남편과 동승만 해도 되고 가끔 아내가 남편 혼자서도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덕분에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두 아들 모두 40분 거리 안에 살고 있으니 시간만 되면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도 가능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받고 보니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특별보너스 이자 노후복지혜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면서 그동안 이루고 싶었던 또 하나의 꿈을 들추어냈다.

그간 숙명여대 선후배들과 여성회, 가정상담소, 봉사기관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인 1세대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 잡아가는데 좀 더 순수한 이웃 봉사 여성기관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한인 여성이 미국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을 까 고민되었다. 이럴 때면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잠으로 신기하게 그때마다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곤 했다. 먼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린다. 이를 영어로 'Praise the Lord, Pray to the Lord and be Patient' 즉 3P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셨다.

하루는 뉴저지 주에 사는 한 권사님이 자신이 이끄는 '선한이웃선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전화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만난 권사님은 다른 한인 기독교인들과 양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연스레 나도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일로 한인 기독교인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분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어 친구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어떨까?" 모두 찬성했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지역의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럼 우리 모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 영어로 Enlightened Korean American Women's Club, 어때?" 이렇게 해서 2006년 10월 36명의 회원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아여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아여모의 목적은 "마음과 영혼이 약해질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훌륭한 여인들의 삶을 흠모하고 배운다. 행복 한 인생을 위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계획하고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한다.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여인들의 정신을 남긴다"이다. 아름다운 마음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 여성 중 연령이나 학력, 종교에 상관없이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사랑 실천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아여모에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다.

1.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한다.
2.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인내한다.
3.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 행복을 나눈다.
4. 남의 실수를 이해하고 관용을 베푼다.
5. 남을 돕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
6. 외로운 분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안부를 전한다.
7. 날마다 책을 읽고 지식과 지혜를 이웃과 나눈다.
8. 행복한 가정에 소중한 여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
9.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병상에 감사한다.
10.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되기를 갈망한다.

순수한 자원봉사기관인 아여모는 회비와 후원금, 바자회를 통한 모금 등으로 지난 5년 간 여러 곳을 도왔다. 격월마다 정기적으로 다섯 곳의 양로원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한인 노인기관, 한인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돕기, 이웃 미국 장애인 기관과 한인 밀알선교 후원하기, 한인 맹인대학생들을 위해 총 12편의 교과서를 녹음 제작해서 제공하기, 병원 유학생에게 장학금 후원하기,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 후원하기, 국제결혼 가정선교회 지원하기, 한국컴패션을 통해 두 소녀 후원하기, 버지니아 총기사건 피해가족 후원하기, 싱글맘 후원하기 등을 통해 지역하와 발전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100여 명의 회원과 후원 회원이 아여모 활동에 동참하고 있고, 장립회장이었던 나는 지금까지도 수입의 십일조를 아여모에 내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다음호에 계속)



교회에서 간증하는 석은옥 여사



# 선교지 편지

## 멕시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새 2012년도 7월로 들어섰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개월도 주어진 사역 속에 바쁘고 분주한 날들이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 일뿐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주님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6월까지의 사역을 간략하게 전해 드립니다.

### 에스라 성경학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하게 된 에스라 성경학교 첫 학기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에는 마태복음, 구약개론, 창세기, 사도행전 총 네 과목 강의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첫 학기의 경험을 통해 에스라 성경학교의 필요성과 함께 저희 마음에 확신 또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에스라 성경학교가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업 시간들을 통해 지식적인 필요성만 채워지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은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고교수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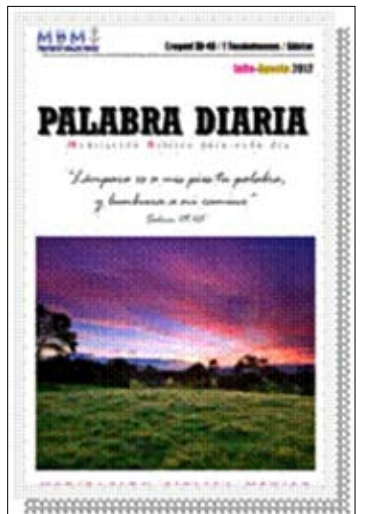
### 지역 목회자연합회 사역

지난 4월 21일 Gustavo A. Madero 지역 목회자연합회로부터 초대와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4시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고, 도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에서도 세미나를 요청해왔습니다.

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에 Hidalgo 주 Actopan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작은 마을에 한 가정에서 매주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나 책임자 없이 2-3년간 가정교회로 모이는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호소하여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25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정기 세미나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은 계속해서 정기 세미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진행되는 세미나에 새로운 목회자, 리더들이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서 그 분들을 통해 멕시코



격월로 발행되는 성경묵상집



강의를 듣고 있는 에스라성경학교 학생들

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묵상집 출판사역

멕시코 말씀묵상사역을 시작하며 교재로 출판하고 있는 묵상집입니다. 격월로 발행되고 있고 묵상집은 세미나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위해 편집과 수정작업,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멕시코의 영혼들이 나날이 늘어가도록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editacionbiblicamexico@hotmail.com 멕시코에서 박지만/한여정 선교사 드림

(9면에서 계속)

### 3.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

하지만 미국도 이제 다문화 정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동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다문화 사회 문제점에 대하여 한 학자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서구의 자유로운 사회가 관용을 강조하면서 다인종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게 다른 공동체(다른 인종사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다문화주의는 계도를 형성한다. 즉 이민자들은 자기들만의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개방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도리어 어렵게 된다. 안산 외국인 집성 동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3) 이러한 계도사회에서 같은 인종 간에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난다(한국에서도 무슬림들의 경우 먼저 온 자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초청한 후 여권도 관리하면서 구박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4) 이민자들은 자기들이 이민 온 나라의 문화나 종교에 적응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 문화의 정체성을 고집한다. 여기서 현지인들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럽의 무슬림들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프랑스에서 차드르가 금지된다. 여기에 대하여 무슬림들은 강경하게 항의한다. 차드르는 이슬람의 상징인데 금지하느냐(J. Andrew Kirk, Civilizations in Conflict? : Islam, the West and Christian Faith, 2012, 65-66 참조).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차드르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불교도들이 불안해한다고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50만 시크교도들은 위협을 많이 느꼈다. 이유는 그들의 터번과 턱 수염은 무슬림으로 오해를 받았다. 시크교도 역시 북장의 상황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계현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82)2-797-1111, Fax: (82)2-797-422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계정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629-2794-5 군포시 길동로 3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김포시 남산동 201번지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82)2-229-2416, Fax: (82)2-229-4454 500-170 영고로(신일) 복구 운동장 500-170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82)339-8491-5, Fax: (82)339-8496 2-10-9 Gaseo Bldg.2F,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82)2-779-2929-5, Fax: (82)2-779-292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대일) Tel: 39-09-677-3282, 39-348-339-1778 VIA DEI GIULIANI 32-38 00173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4: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82)2-640-9006, Fax: (82)2-640-9089 서울시 강동구 길동로 330-4 (734-6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새연교회</b> 담임목사: 소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영고로 500번지 (신일) 500-170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명락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82)2-740-4500, 4339-4, Fax: 740-4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9-4, (912-6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82)2-640-9181, Fax: (82)2-640-2738 2154 서구 길동로 410-4(214-271)	<b>승문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복합)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영고로 500번지 (신일) 500-170번지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혁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8-0776, Fax: (82)2-798-0671 서울시 서초구 노곡동 43-47	<b>안암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50 주일6부예배: 오후 8:3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안곡교회</b> 담임목사: 서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10:30(복합) 주일6부예배: 오후 12:00 Tel: (82)2-797-4500, Fax: (82)2-797-4500 (841-27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11:30 Tel: (82)2-640-9181, Fax: (82)2-640-273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8:3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주안교회</b>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주일6부예배: 오후 4:30 주일7부예배: 오후 7:3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안동 294-10(629-838)	<b>장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629-2794-5, Fax: (82)2-629-279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0-1121-2121	<b>정주주의교회</b> 담임목사: 서서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주일7부예배: 오후 8:30 Tel: (82)2-797-3971, Fax: (82)2-797-3974 267-83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7-3971, Fax: (82)2-797-397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59-12(640-021)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선교사와의 만남

(1) 김정희 선교사 (KWMF 여성지회장/러시아)

여성선교사들 배려한 2012 KWMC대회 감사

“지난 2008년 대회에 이어 부족한 제가 회장에 재임했습니다. 회장 임기동안 실질적으로 여성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모임이 되도록 힘써나갔습니다.”

지난 7월 사카고 헛튼대학에서 열린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만난 김정희 러시아선교사(KWMF 여성지회장)는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막상 여성들의 리더십은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임기동안 여성들의 위상에 맞는 KWMF를 가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회장으로 여성선교사들을 섬겨왔다고 회상한 김정희 선교사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3개 대륙에서 각각 선교대회를 열고 선교대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선교의 자긍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14개국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85명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모여 1차



김 선교사는 여성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바로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것이 기도 부족이며 성령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치부하며 비난을 하지만 여성이라는 특수성에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KWMC 대회직전 열린 선교사대회에서 감사의 말씀에 위로 받고 또 간증시간을 통해 도전과 충

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의 행사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로 짜였어요. 남성 목회자들은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이는 여성선교사들에 대한 배려이고 또 실질적인 대회로 열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브라질에서 여성선교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성선교대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귀한 후배 여성선교사들이 잘 이어받아 KWMF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세계선교는 네트워크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 안에서 고통당하고 테러 등으로 위협에 처한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해

여성 에민성 살려 현지어 성경공부 인도 등 현지 문화 맞춤형 선교로 사역효과 높여야

선교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2차는 2011년 1월에 LA에서 20개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84명의 선교사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3차 선교대회는 작년 9월 19일 20개국에서 98명의 여성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세 대회를 통해 여성들이 힘을 얻게 됐고 그 힘을 통해 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김 선교사는 선교대회를 통해 여성선교사들은 그들 각자가 선교사역에서 받은 은혜와 스트레스 등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과 그것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본인의 사역은 물론 서로의 사역에 대해 중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여성선교사들은 10년 이상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20년 이상 된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사역하면서 받은 것 중 하나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자녀교육과 아내로서 겪은 아픔이랄까요. 이러한 것들을 선교지에서는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대회를 통해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 그리고 선교비 중단과 강도 등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대 형성함으로 내면치유로 이어져 그들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격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책자로 만들어 한국여성의 선교역사의 장을 열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선교사들의 강점은 에민성이라고 밝혔다.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예민하지요. 언어습득능력도 남성선교사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부선교사의 경우 언어 습득 면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높아 그룹성경공부 인도자로 많이 사역하고 있거든요. 언어습득 외에도 문화인식 등이 더 빠른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또한 그는 선교현장에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여성선교사들이 많으며 부부가 함께 사역하다 남편을 사별한 일명 ‘돌싱’ 선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남아 현지인들과 어울려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선교대회 역시 여성선교사들에 대한 배려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선교가 건강해지려면 여성선교사들이 영육 간에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교대회는 남성선교사 위주로 디자인이 돼왔어요. 심지어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행사도 강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남성들로 이루어져 여성선교사들이 도외시되는 는

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가야 하고요.”

그는 모슬렘과 힌두 권, 그리고 공산권에도 이런 위협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다시 세우기야 하며, 성도가 많은 현지교회를 지원하기보다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제자화 훈련을 하는 교회를 후원해야 한다고 힘있게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희 선교사는 러시아인들은 자존심이 대단히 크기에 겸손하게 선교를 해야 하며 그것은 단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즉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과 음악교육 등을 위해 선교팀이 구성되는 등 현지에 맞게 맞춤형 선교를 해야 하지만 일부 공격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가 하는 식으로 전도지를 뿌리고 수 천, 수 만 명을 체육관이나 광장에 끌어 모아 여는 대형집회 등은 오히려 선교의 문을 가로막아 버리는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WMF 여성지회장 김정희 선교사의 연락처는 moskjh@hanmail.net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JEL재능교육(북부장 최 깃을 찾아서

“새 학기...무리하지 않는 학습습관 키워줘야”

새 학기가 시작됐다. 긴 여름방학으로 인해 흩어진 생활습관을 바로잡기에 자녀도 부모도 긴장할 때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방법은 없을가? 미주 지역에서 21년째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최 길 본부장(JEL재능교육·사진)을 만나 미주교육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학습지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하루 일과의 스케줄이 잘 정해져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바른 학습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학습습관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여는 최 본부장. 그는 ‘어려서부터의 학습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간을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좋은 학습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학습습관을 위해서는 학습스케줄을 짜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과의 소통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억지로 많이 시키려고 하면 처음에는 따라오는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 실증을 느끼게 된다. 아이들이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



해가며 학교교육을 도왔다. 또 지난 해에는 Reading & Writing을 펴냈다. 이 교재는 기존 우량도서를 읽고 깊이 있게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책을 잘 분석하고 독서하고 좀 더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리드하고 있다. 리딩교재는 토론하고 발표하는 과정이기에 스몰그룹형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재능 교재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재, 좋은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맞는 학습이 아니라면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하는 최 본장은 “정밀한 진단을 통해 자기의 능력에 맞고 꼭 필요한 공부를 뽑아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자기주도학습’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재능교육은 일찍부터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내

“자녀가 납득할 만한 학습스케줄 짜고 효율적으로 지도”

간 등을 정해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는 불만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아이들이 반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그런 일방적인 컨트롤은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초등학교 때 문제가 있었다고 호소하는 부모는 극히 드물지요. 그건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이런 현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 공부의 관념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35년 전 한국에서 처음 재능교육이 시작될 무렵 당시 한국 수학은 계산식이었고 미주의 수학은 원리중심이라고 할 수 있던 시기이다. 그러나 재능은 원리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시작 한 셈이다. 그 후 1992년 재능은 미국에서도 시작되어 20년이 흐르는 동안 미국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재능교육의 교재도 업그레이드돼 미국학교 교육과정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 재능을 공부한 아이들이 전국 주정부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게 됐다.

수학으로 시작한 재능은 1998년 영어교재도 집필했다. 영어교재 역시 미국 주정부에서 만드는 NCTE 스탠더드 교재에 따라 업그레이드

자녀에게 맞는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재능교육을 받기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정밀학습실태 검사를 실시합니다”라고 말을 이어가며 부모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갑자기, 빨리 한꺼번에 공부를 잘하게 하려는 것은 마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길게 보고 어려서부터 학습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미주재능 21년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센터(학원)는 미주에 60여개가 있다. 처음 시작한 한인들을 생각하며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절반이상이 타인종이다. 이제 재능은 미국 교육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학, 영어, Reading & Writing을 들고 미국 주류사회를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한인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주역이 되길 소망하며 시작한 미주재능교육은 이제 머잖아 미국교육계에서도 남부원으로 칭할 만큼 그날을 꿈꾸며 온 직원들은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다.

재능교육에 관한 문의는 www.jellearning.com 또는 (323)036-3300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012 목회자 리더십 및 비전 컨퍼런스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역구조로 구조 조정하는 교회! 강력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 목회자 자신의 리더십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변화의 교회!

<교재>

- 1. 정인수 목사(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리더십 저서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두란노)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 리더십 (두란노)
-새로운 부흥의 물결로 혁신하는 리더십 (두란노, 신간출판예정)
2. 애틀란타 연합교회 전문 목회 자료집

[아틀란타연합교회는...]

- 1. 전통교회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메타 교회로 과감히 전환하였습니다.
2. 말씀과 성령의 목회가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160개의 평신도 전문팀 사역과 132개의 가정 공동체(셀그룹) 소그룹으로 역동적인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4. 강력한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일시 : 2012년 9월 24일(월)-26일(수)

장소 :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2534 Duluth Hwy., Duluth, GA 30097

- 강 사 : 정인수 담임목사 외 본 교회 목회팀
■ 참가대상 : 새로운 교회 사역의 변화를 시도하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 회 비 : 일인당 50불 (숙식은 본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 신청문의 : 권혁래 전도사 (Tel. 770-605-1921)
e-mail: jesusevent@hotmail.com
김윤수 간사 (Tel. 770-939-4673 ext.113)
e-mail: kpcpcskim@hotmail.com

◆ 신청마감 : 2012년 9월 13일(목) 까지

※ 신청서는 www.yunhap.org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